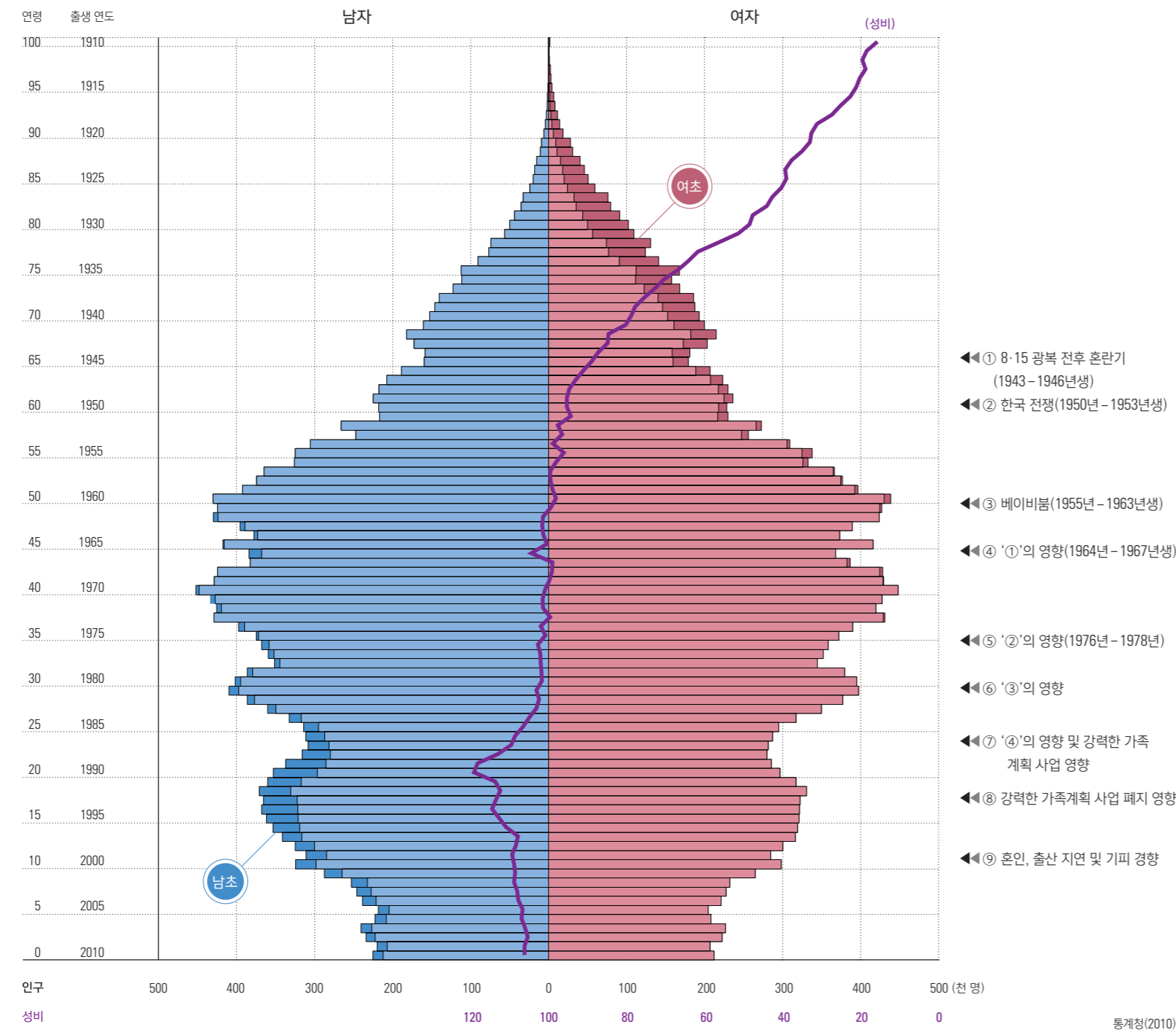


인구 구조와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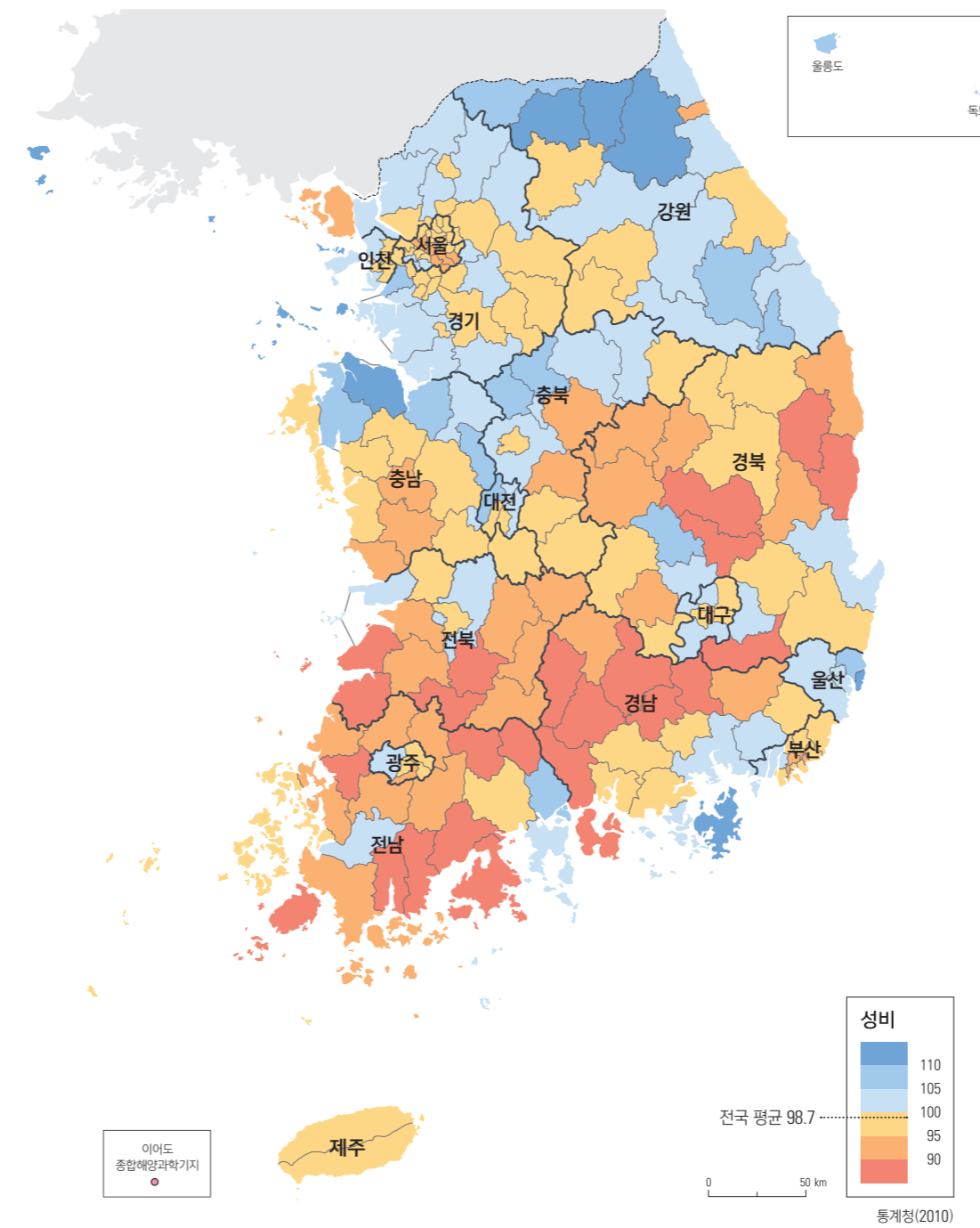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시기별, 성별 인구 구조를 보여준다. 광복 전후 혼란기와 한국 전쟁 시기에는 출생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64-1967년 출생자의 경우 광복 전후 혼란기의 자식 세대이기 때문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1976-1978년 출생자 역시 한국 전쟁 당시 출생자의 자식 세대이기 때문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1980년대 초반 출생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이기 때문에 수가 증가하였다. 1985-1990년 출생자는 1964-1967년 출생자의 자식 세대일 뿐만 아니라 당시 펼쳐진 강력한 가족계획의 영향 때문에 수가 급감하였다. 그 후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이 폐지되어 출생자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혼인 연령이 증가하고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출생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나타내는 성비를 통해 성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3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남자의 비율이 높고, 60세 이상에서는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한편, 추계 인구를 기준으로 2010년 현재 약 4,940만 명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약 5,22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인구 정체, 미래의 인구 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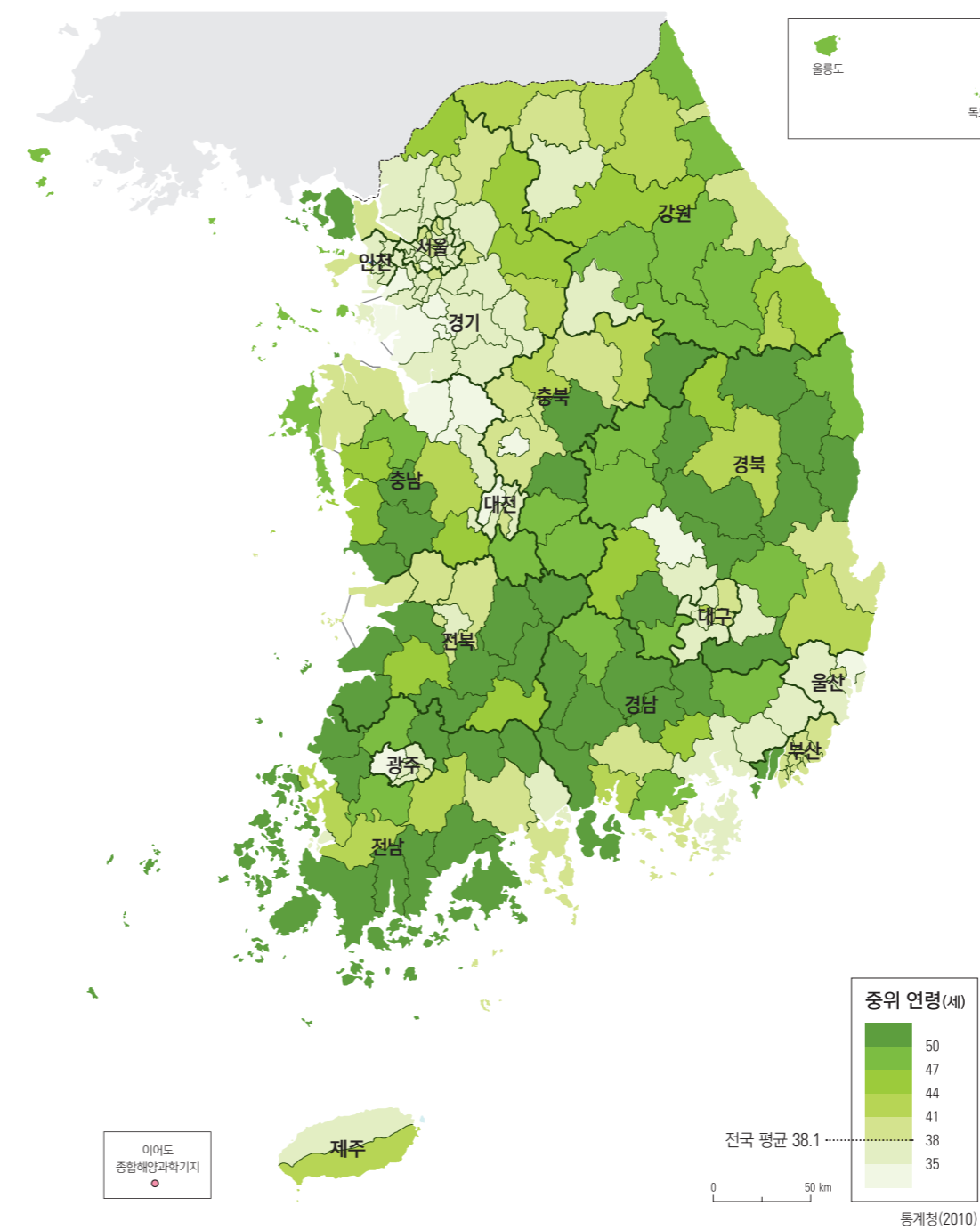


인구 구조

성비(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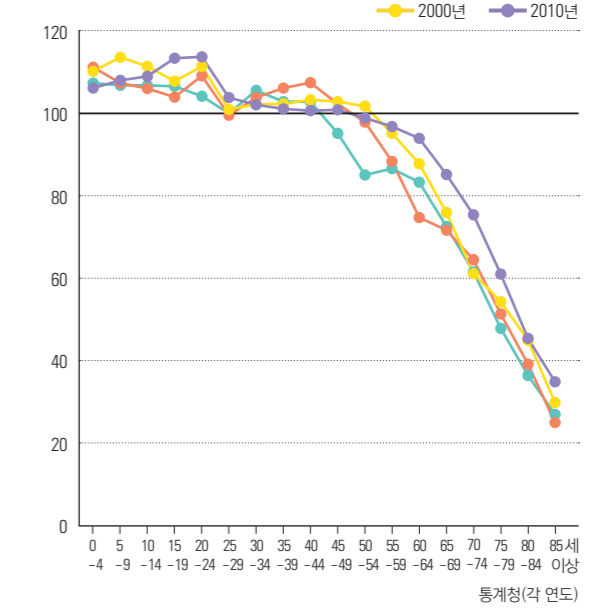
중위 연령(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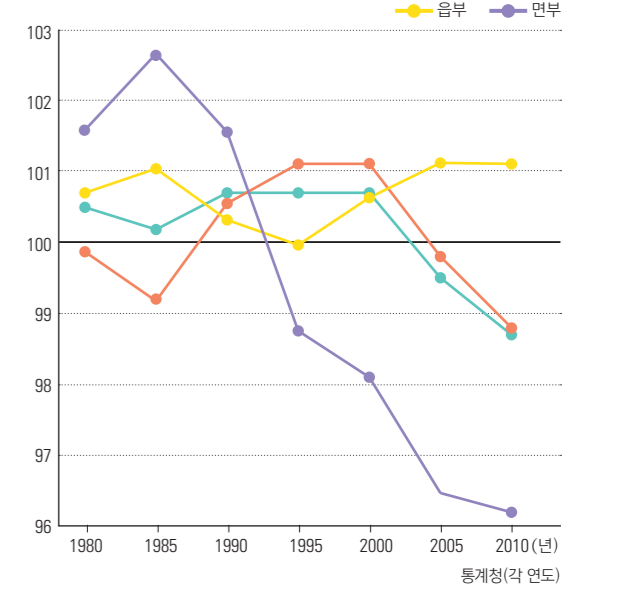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의 성비는 98.7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성비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성비가 낮은 지역(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인 군 지역인 경우가 많다. 이는 생산 가능 연령의 인구 유출로 노년층 인구가 많고 노년층 인구의 경우 성비가 대부분 100 이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성비가 높은 지역은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울산, 거제, 광양과 최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 지역 등이다. 또한 강원도 접경 지역의 성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성비를 살펴보면 30대 초반까지는 100을 초과하여 남자의 비율이 높지만 50세를 초과하면 성비가 100 미만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다. 한편 면부의 성비는 1995년 이후 100 이하이며, 동부의 성비 역시 2005년 이후 100 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읍부의 성비는 100 이상이다.

연령별 성비



동읍·면 성비



시·도별 성비와 중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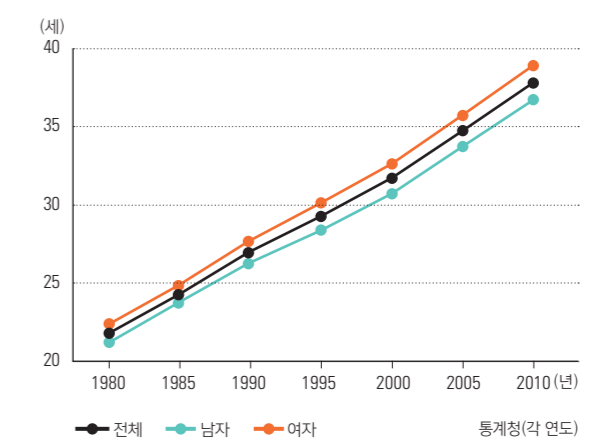
행정 구역	인구(명)			성비	중위 연령(세)		
	합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47,990,761	23,840,896	24,149,865	98.7	38.1	37.0	39.3
동부	39,363,373	19,558,869	19,804,504	98.8	37.1	36.1	38.0
읍부	4,149,215	2,086,063	2,063,152	101.1	38.4	37.3	39.6
면부	4,478,173	2,195,964	2,282,209	96.2	50.3	46.7	53.7
서울특별시	9,631,482	4,726,028	4,905,454	96.3	37.3	36.5	38.2
부산광역시	3,393,191	1,664,678	1,728,513	96.3	40.3	38.7	41.8
대구광역시	2,431,774	1,204,428	1,227,346	98.1	38.5	36.9	39.9
인천광역시	2,632,035	1,315,562	1,316,473	99.9	37.3	36.3	38.1
광주광역시	1,466,143	724,161	741,982	97.6	35.5	34.4	36.6
대전광역시	1,490,158	745,150	745,008	100.0	36.0	34.8	37.1
울산광역시	1,071,673	550,869	520,804	105.8	37.1	35.9	38.2
경기도	11,196,053	5,599,570	5,596,483	100.1	36.6	35.9	37.3
강원도	1,463,650	735,075	728,575	100.9	40.8	39.1	42.6
충청북도	1,495,984	748,622	747,362	100.2	39.0	37.5	40.5
충청남도	2,000,473	1,007,454	993,019	101.5	39.0	37.6	40.6
전라북도	1,766,044	867,630	898,414	96.6	40.5	38.7	42.4
전라남도	1,728,749	845,952	882,797	95.8	43.6	41.3	46.3
경상북도	2,575,370	1,281,510	1,293,860	99.0	41.3	39.3	43.5
경상남도	3,119,571	1,562,686	1,556,885	100.4	39.0	37.5	40.6
제주특별자치도	528,411	261,521	266,890	98.0	38.3	37.0	39.6

통계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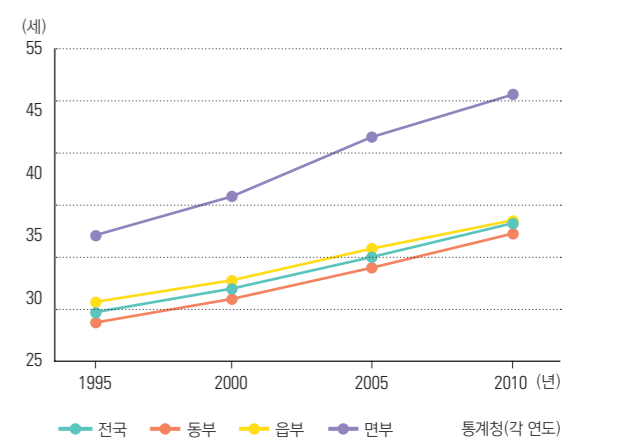
중위 연령은 해당 지역의 인구를 연령순으로 배대도시 지역의 중위 연령이 낮고, 군 지역의 중위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부 지역의 중위 연령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위 연령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위 연령은 동부나 읍부보다 10세 이상 더 많은 50세이고, 특히 면부의 여성 중위 연령은 54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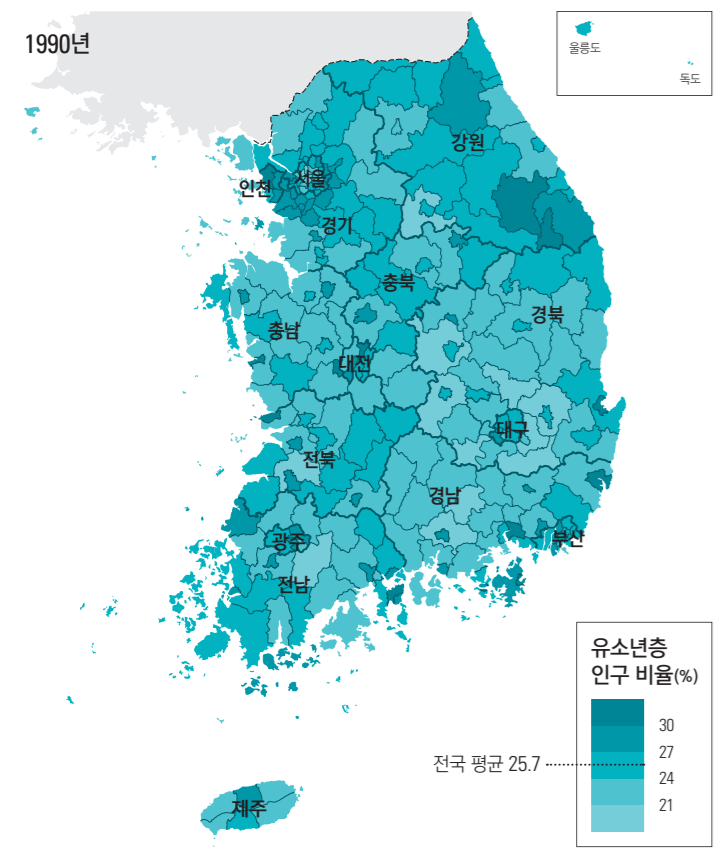
성별 중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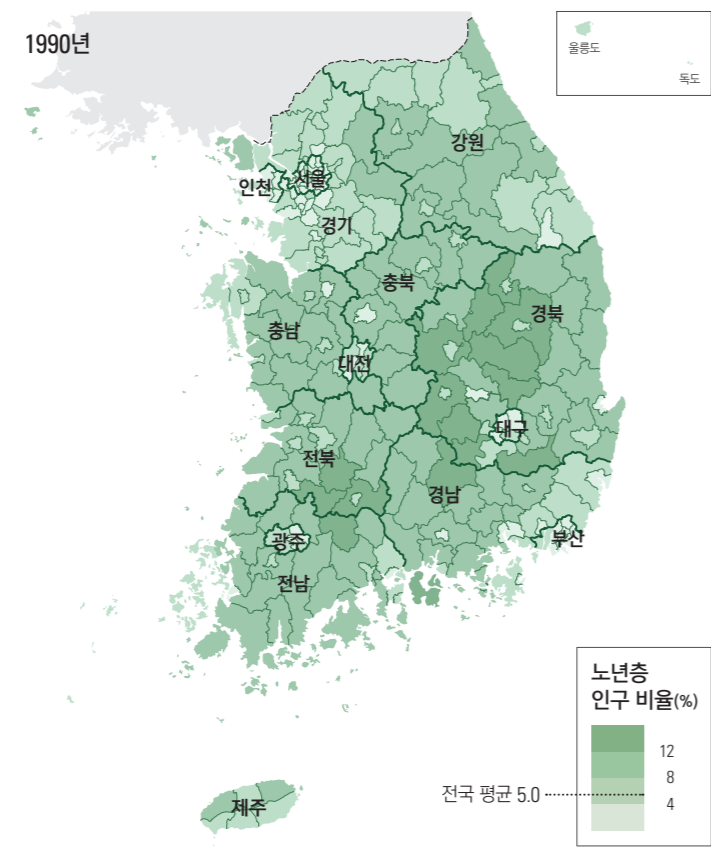
동읍·면 중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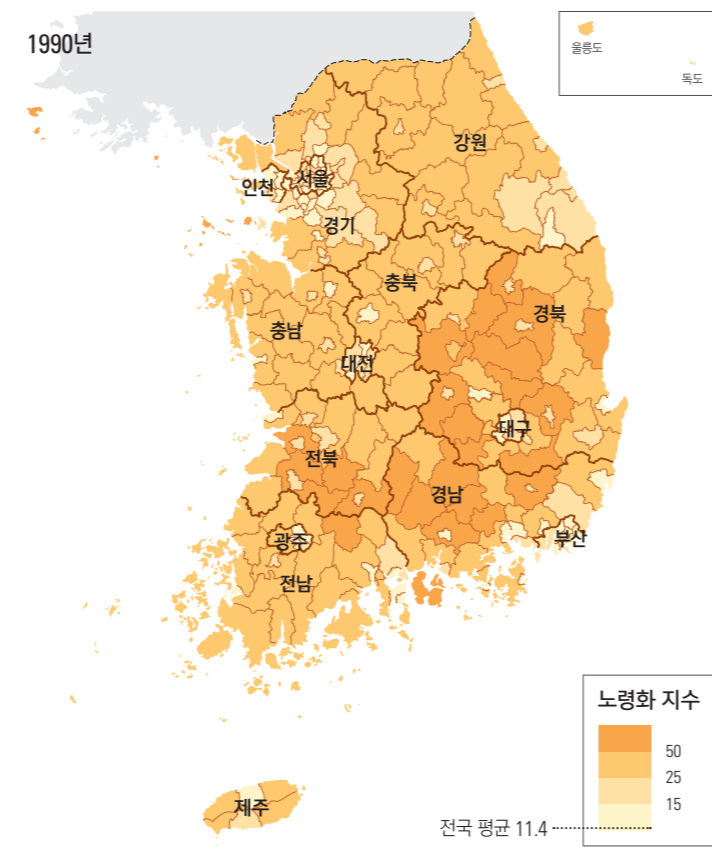
유소년층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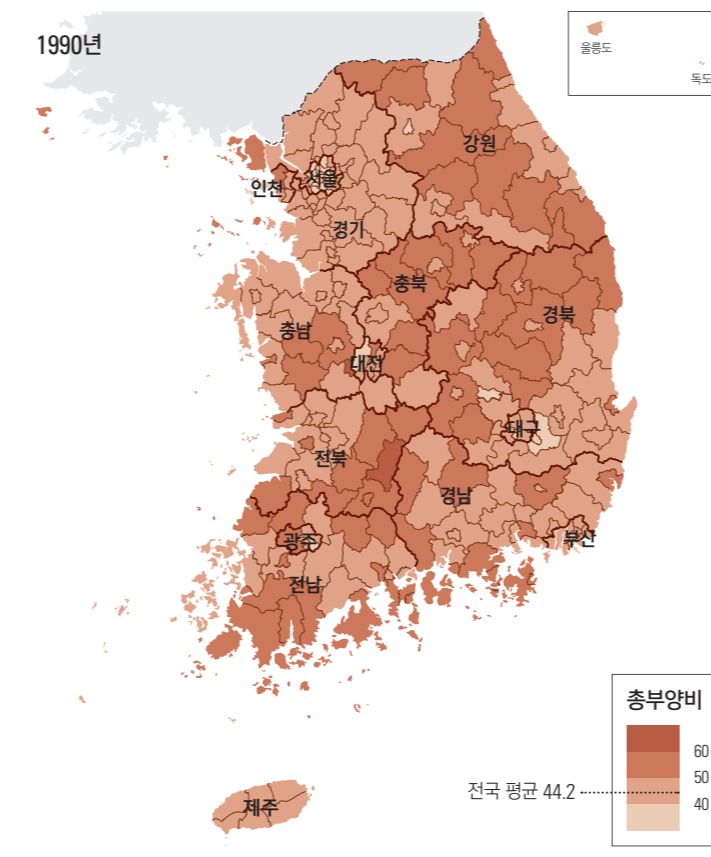
노년층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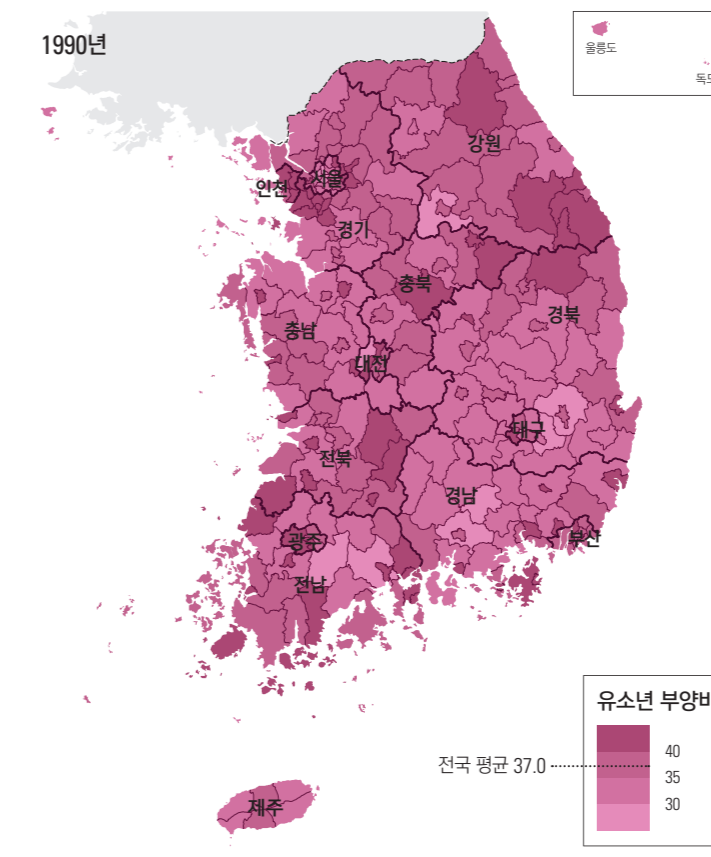
노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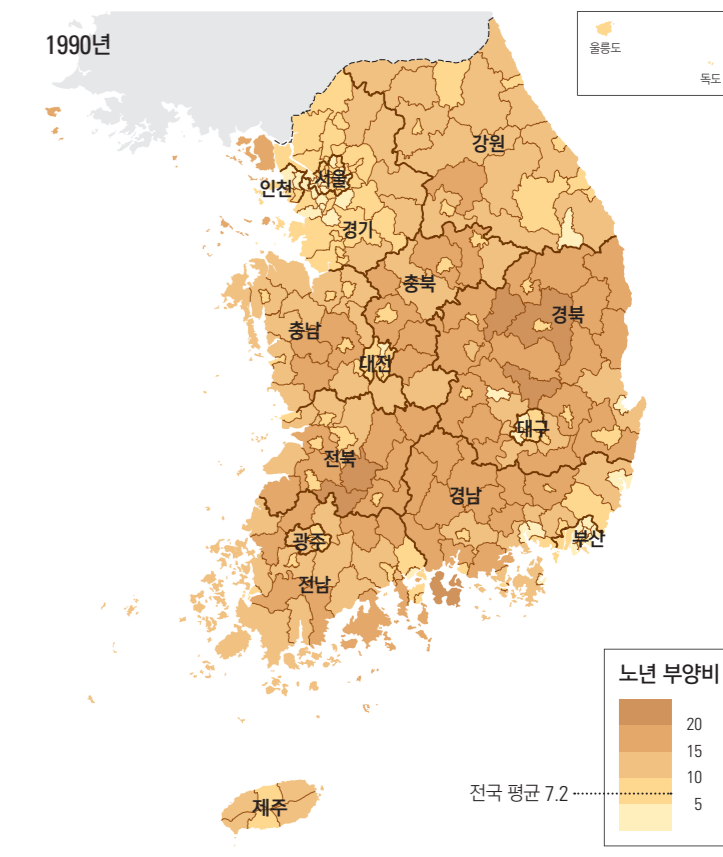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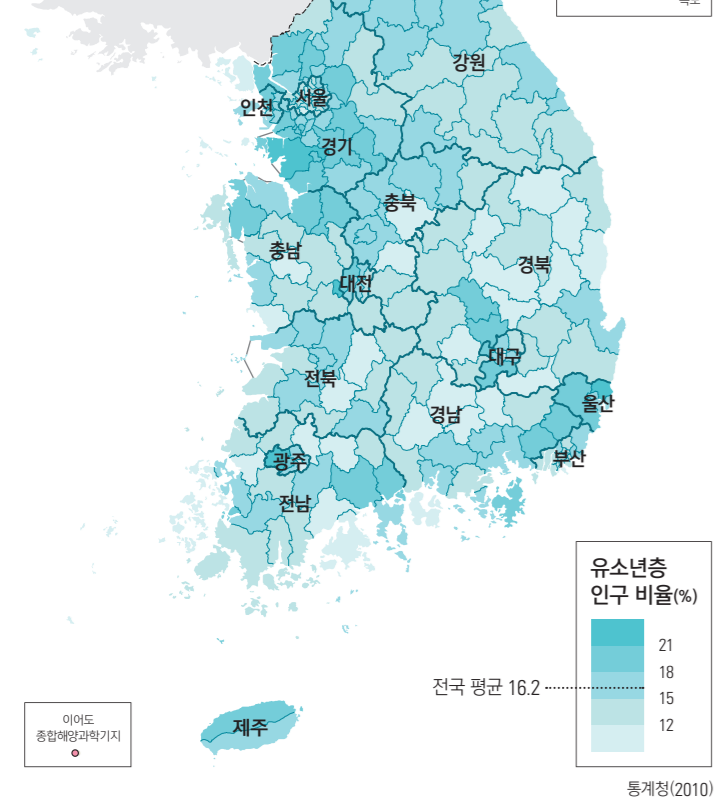
유소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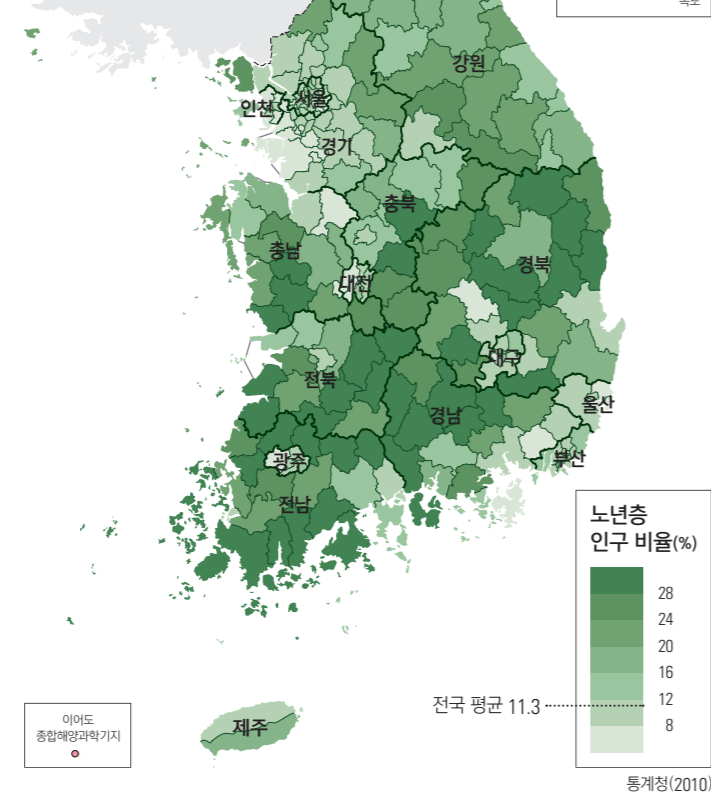
노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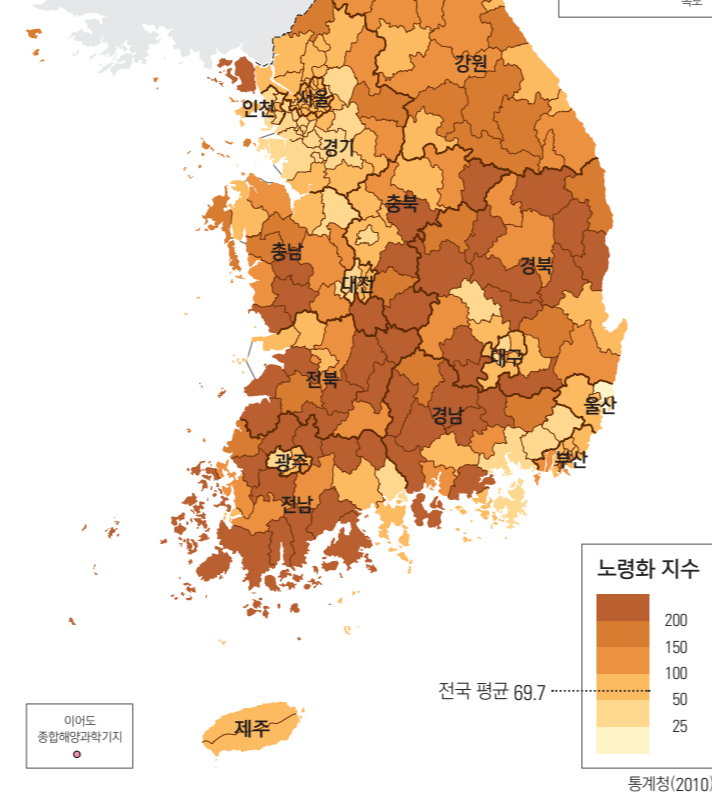
유소년층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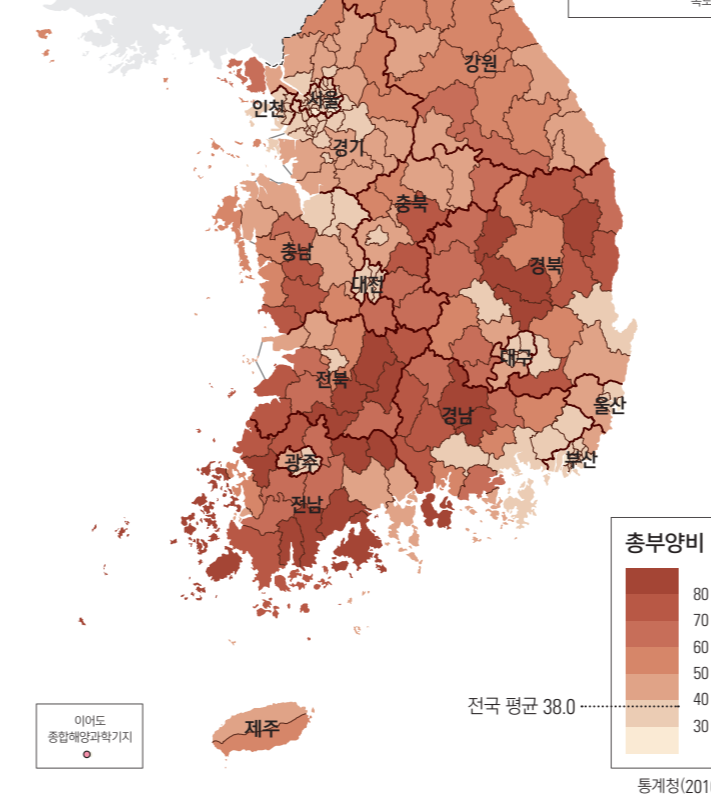
노년층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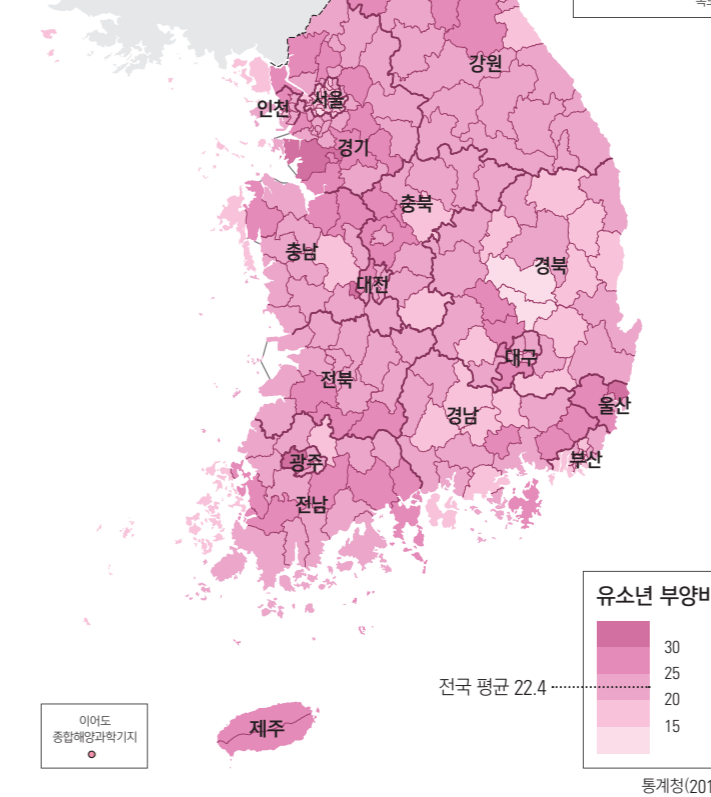
노령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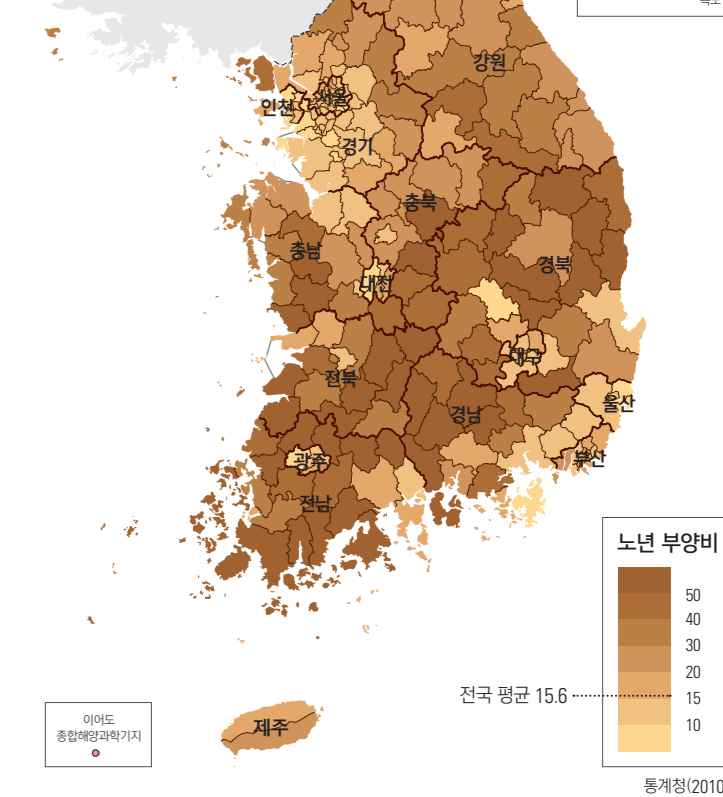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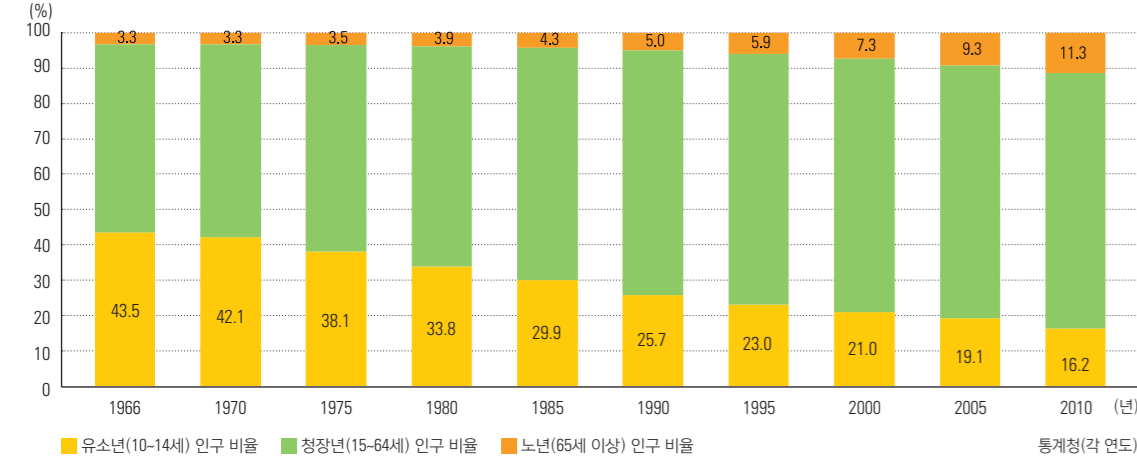
유소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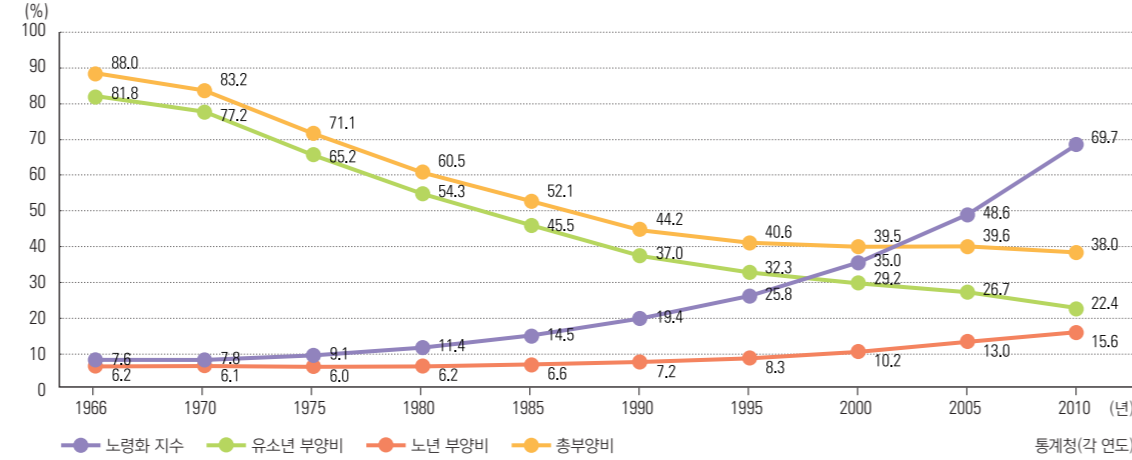
노년 부양비



연령별 인구 구조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인구를 유소년층(0-14세), 청장년층(15-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인구 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연령별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과 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노령화 지수 = 노년층 인구 × 100 / 유소년층 인구
- 총부양비 = (유소년층 인구 + 노년층 인구) × 100 / 청장년층 인구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층 인구) × 100 / 청장년층 인구
- 노년 부양비 = (노년층 인구) × 100 / 청장년층 인구

1990년과 2010년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비교해 보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였고, 노년층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는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

도 차이를 보여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군 지역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낸다. 부양비의 경우 총부양비는 증가했고,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으며, 노년 부양비는 증가했는데, 부양비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1960년대부터 2010년 현재까지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화 지수는 증가

추세이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비율의 감소에 따라 감소 추세이다. 노년 부양비는 노년층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모두 증가하지만 노년층 인구의 증가율이 청장년층 인구의 증가율보다 높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총부양비는 결과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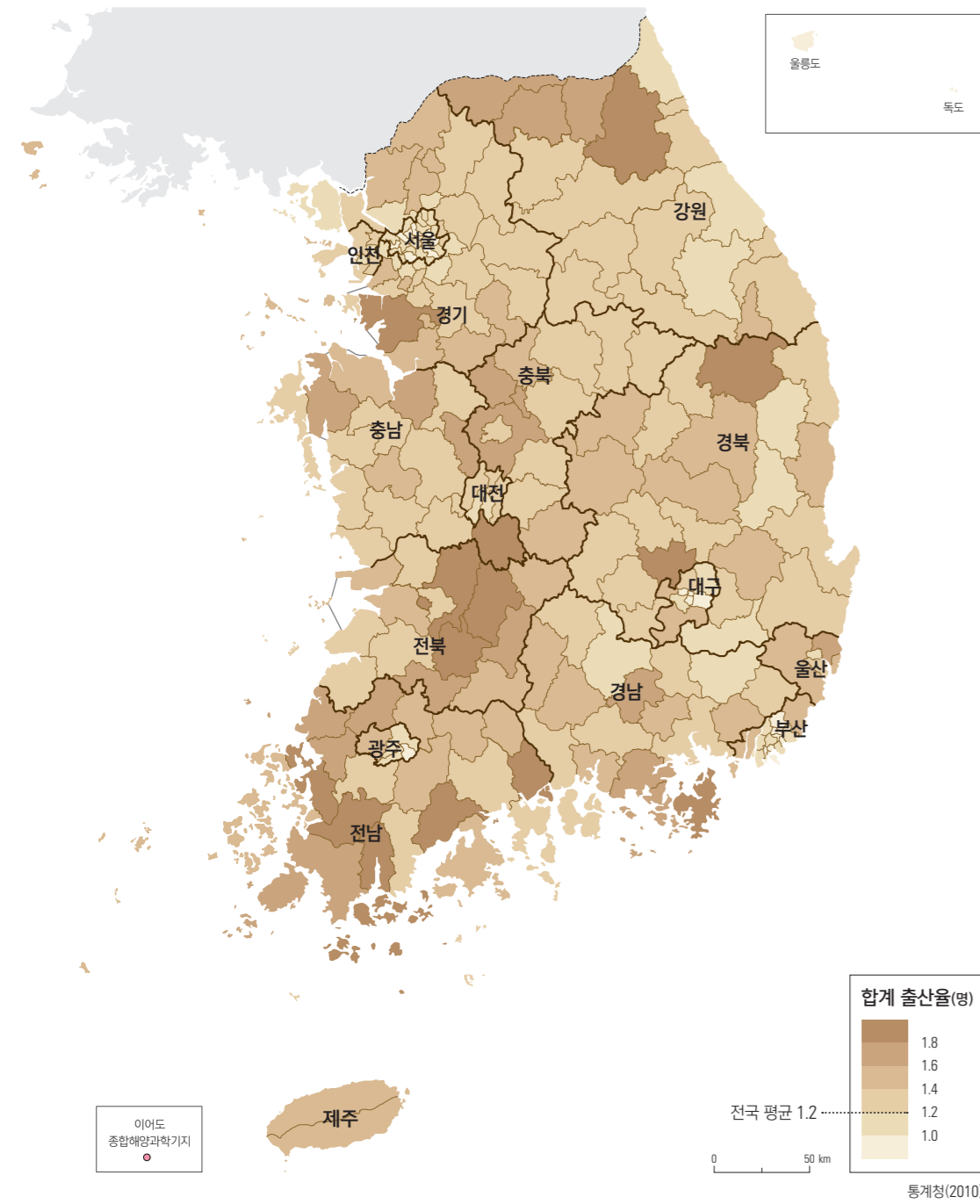
한편 2010년 현재 동·읍·면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동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74%로 생산 연령 인구가 4명 중 3명 정도이다. 하지만 면부는 청장년층 비율이 60%로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28%를 차지하며, 면부의 노령화 지수는 2010년 현재 239로 전국 평균인 70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시·도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이고, 다음으로 서울, 경북, 대구 순이다. 경북은 노년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낮지만, 부산, 서울, 대구는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 비율이 낮았다. 이는 부양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이며 다음으로 서울, 대구 순이다. 청장년층 비율은 서울, 광역시, 경기도가 모두 72% 이상으로 높으며, 전남이 64%로 가장 낮다. 반대로 노년층 인구 비율은 서울, 광역시, 경기도가 낮으며, 전남이 20%로 가장 높다.

시·도의 연령별 인구 구조(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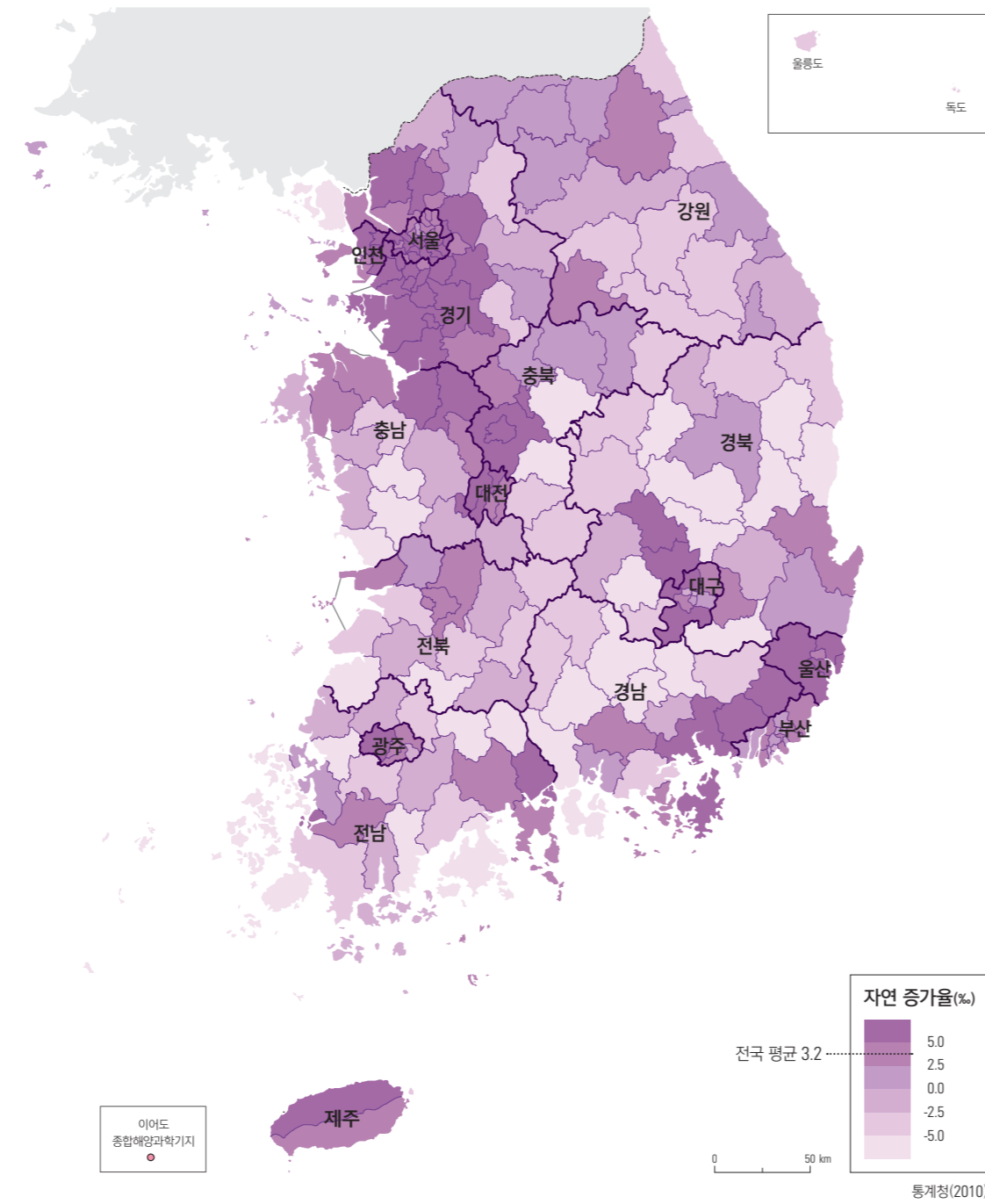
행정구역	연령별 인구(명)				인구 비율(%)			부양비			노령화 지수
	합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유소년	청장년	노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전국	47,990,761	7,796,973	34,779,121	5,424,667	16.2	72.5	11.3	22.4	15.6	38.0	69.7
동부	39,363,373	6,500,481	29,244,605	3,618,287	16.5	74.3	9.2	22.2	12.4	34.6	55.7
읍부	4,149,215	765,410	2,824,149	559,656	18.4	68.1	13.5	27.1	19.8	46.9	73.1
면부	4,478,173	521,082	2,710,367	1,246,724	11.6	60.5	27.8	19.2	46.0	65.2	239.3
서울특별시	9,631,482	1,355,303	7,347,223	928,956	14.1	76.3	9.6	18.4	12.6	31.1	68.5
부산광역시	3,393,191	462,551	2,533,510	397,130	13.6	74.7	11.7	18.3	15.7	33.9	85.9
대구광역시	2,431,774	388,204	1,792,054	251,516	16.0	73.7	10.3	21.7	14.0	35.7	64.8
인천광역시	2,632,035	437,184	1,962,652	232,199	16.6	74.6	8.8	22.3	11.8	34.1	53.1
광주광역시	1,466,143	269,187	1,063,819	133,137	18.4	72.6	9.1	25.3	12.5	37.8	49.5
대전광역시	1,490,158	256,655	1,102,488	131,015	17.2	74.0	8.8	23.3	11.9	35.2	51.0
울산광역시	1,071,673	193,915	802,645	75,113	18.1	74.9	7.0	24.2	9.4	33.5	38.7
경기도	11,196,053	2,032,016	8,165,470	998,567	18.1	72.9	8.9	24.9	12.2	37.1	49.1
강원도	1,463,650	229,469	1,007,770	226,411	15.7	68.9	15.5	22.8	22.5	45.2	98.7
충청북도	1,495,984	246,902	1,041,123	207,959	16.5	69.6	13.9	23.7	20.0	43.7	84.2
충청남도	2,000,473	327,826	1,362,166	310,481	16.4	68.1	15.5	24.1	22.8	46.9	94.7
전라북도	1,766,044	288,742	1,187,718	289,584	16.3	67.3	16.4	24.3	24.4	48.7	100.3
전라남도	1,728,749	276,113	1,099,676	352,960	16.0	63.6	20.4	25.1	32.1	57.2	127.8
경상북도	2,575,370	385,192	1,759,695	430,483	15.0	68.3	16.7	21.9	24.5	46.4	111.8
경상남도	3,119,571	536,870	2,191,353	391,348	17.2	70.2	12.5	24.5	17.9	42.4	72.9
제주특별자치도	528,411	100,844	358,759	67,808	19.1	68.1	12.8	28.0	18.8	46.9	67.2

인구 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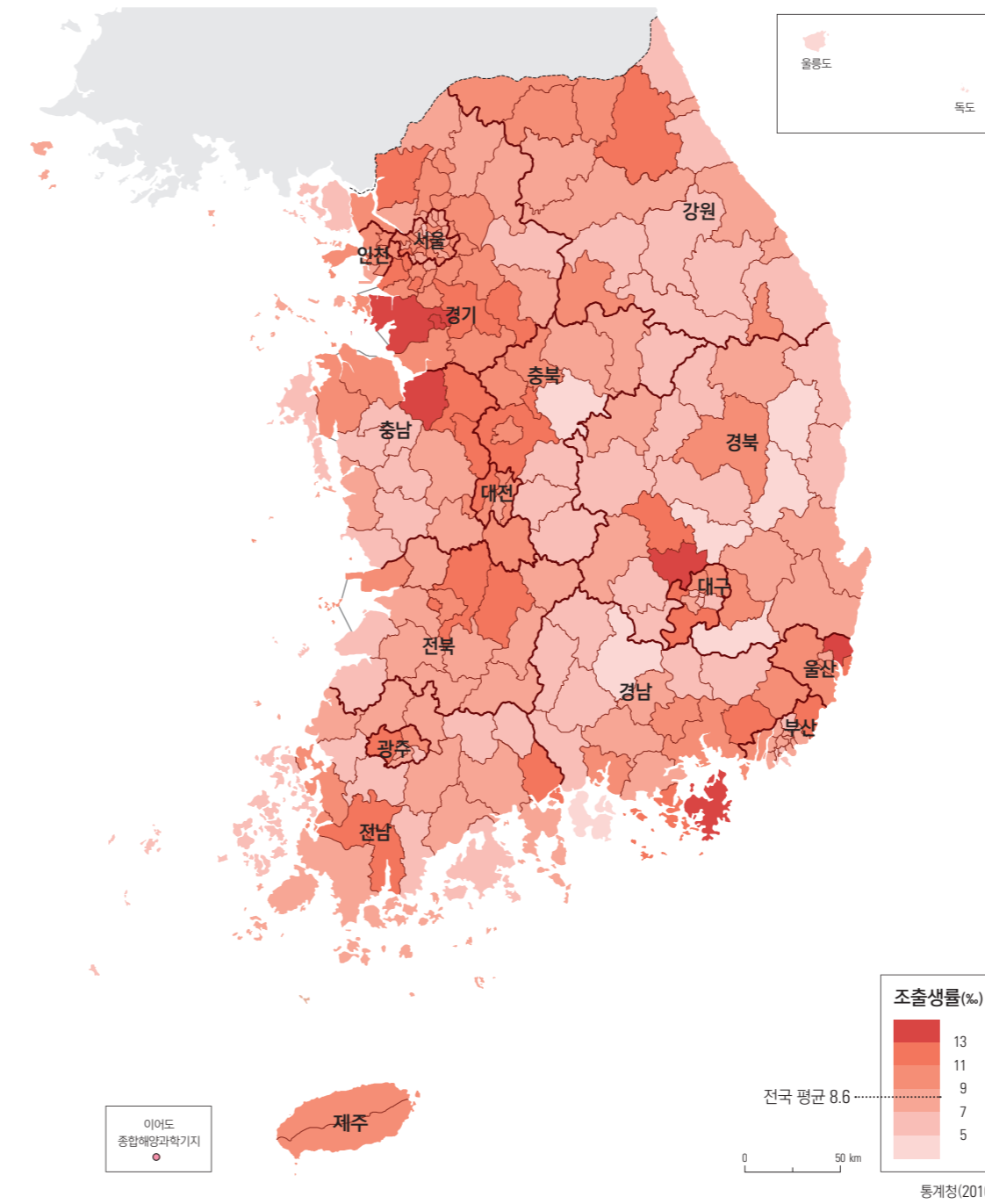
합계 출산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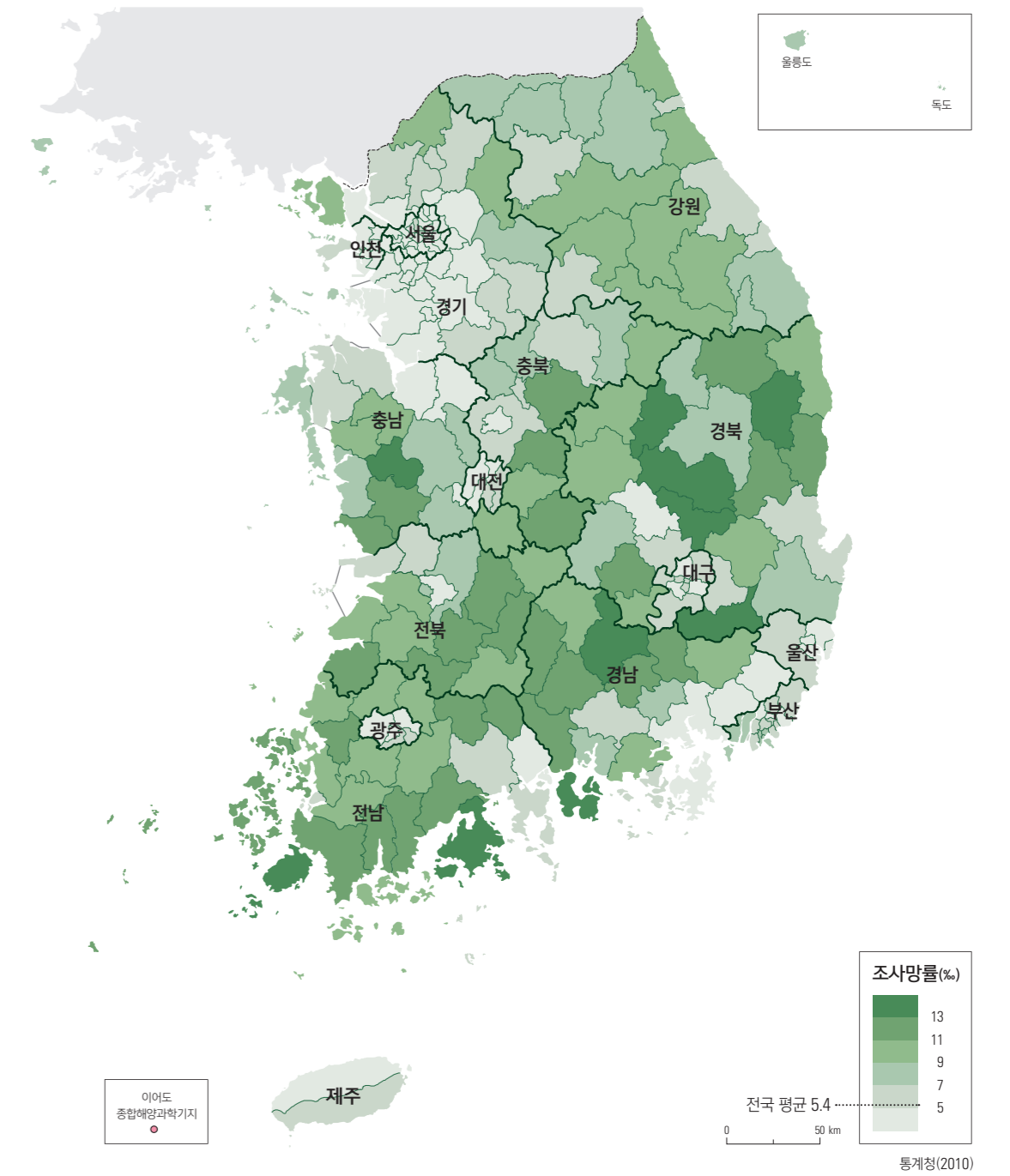
자연 증가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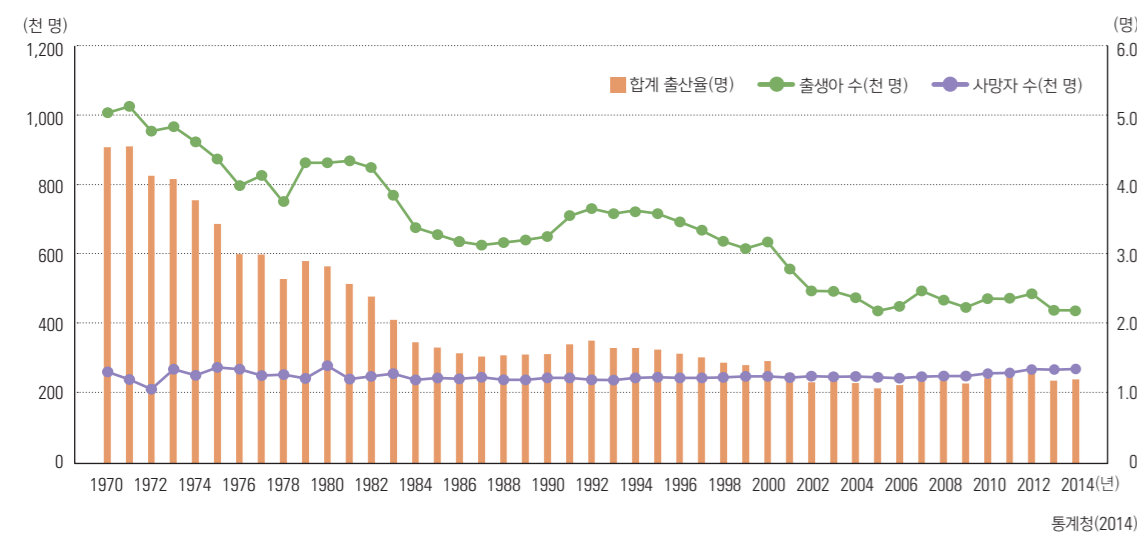
조출생률(2010년)



조사망률(2010년)



시기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합계 출산율



인구의 변화는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런 인구의 자연적 변동 상황을 인구 동태라고 한다. 가입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1973년까지는 4명 이상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83년에는 2.1명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어 2014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명이다. 이런 낮은 출산율은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에도 반

영되는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출생률은 8.6명이다. 한편 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2010년 현재 5.4명이고,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2010년 현재 인구 천 명당 3.2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대도시가 낮게 나타나며, 자연 증가율은 수도권과 충청 북부, 부산-울산권,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난다.

시·도의 인구 동태

행정 구역	1990년				2000년				2010년									
	출생자(명)	조출생률(%)	사망자(명)	조사망률(%)	자연 증가(명)	자연 증가율	출생자(명)	조출생률(%)	사망자(명)	조사망률(%)	자연 증가(명)	자연 증가율						
전국	649,739	15.2	241,616	5.6	408,122	9.5	634,501	13.3	246,163	5.2	388,338	8.2	470,171	9.4	255,405	5.1	214,766	4.3
서울특별시	168,838	16.1	38,266	3.7	130,572	12.5	131,935	12.8	38,815	3.8	93,120	9.1	93,268	9.2	40,130	3.9	53,138	5.2
부산광역시	56,023	14.7	16,506	4.3	39,517	10.4	40,877	10.7	18,177	4.8	22,700	6.0	27,414	7.8	19,708	5.6	7,706	2.2
대구광역시	33,271	14.5	9,674	4.2	23,597	10.3	32,231	12.8	11,389	4.5	20,862	8.3	12,054	4.8	8,503	3.4		
인천광역시	34,776	18.3	7,159	3.8	27,617	14.6	34,143	13.5	10,636	4.2	23,507	9.3	25,752	9.5	12,087	4.4	13,665	5.0
광주광역시	17,388	15.5	5,329	4.7	12,059	10.7	20,987	15.4	5,812	4.3	15,175	11.1	13,979	9.7	6,532	4.5	7,447	5.2
대전광역시	15,822	15.3	4,721	4.6	11,101	10.7	19,402	14.1	5,751	4.2	13,651	9.9	14,315	9.6	6,313	4.2	8,002	5.4
울산광역시	-	-	-	-	-	-	15,734	15.2	3,845	3.7	11,889	11.5	11,433	10.2	4,328	3.9	7,105	6.4
경기도	115,018	19.3	29,576	5.0	85,442	14.3	140,492	15.5	38,678	4.3	101,814	11.2	121,751	10.5	47,687	4.1	74,064	6.4
강원도	19,030	12.2	11,710	7.5	7,320	4.7	19,286	12.4	10,911	7.0	8,375	5.4	12,477	8.2	10,729	7.1	1,748	1.2
충청북도	17,510	12.7	10,830	7.9	6,680	4.9	19,471	13.0	10,272	6.9	9,199	6.2	14,670	9.6	9,825	6.4	4,845	3.2
충청남도	21,093	10.6	15,923	8.9	5,170	2.6	24,481	12.7	14,818	7.7	9,663	5.0	20,242	9.9	14,014	6.8	6,228	3.0
전라북도	23,753	11.6	16,352	8.0	7,401	3.6	24,936	12.4	14,384	7.2	10,552	5.3	16,100	8.7	13,188	7.1	2,912	1.6
전라남도	26,576	10.9	24,893	10.0	2,083	0.8	25,724	12.0	18,058	8.4	7,666	3.6	16,654	8.7	16,042	8.4	612	0.3
경상남도	36,341	13.3	24,578	9.0	11,763	4.3	34,893	12.4	21,789	7.8	13,124	4.7	23,699	8.9	20,249	7.6	3,450	1.3
경상북도	57,160	16.0	23,186	6.5	33,974	9.5	41,362	13.4	19,981	6.5	21,381	6.9	32,203	9.9	19,502	6.0	12,701	3.9
제주특별자치도	6,739	13.2	2,913	5.7	3,826	7.5	8,547	15.8	2,887	5.3	5,660	10.5	5,657	10.0	3,017	5.3	2,640	4.7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연 47만 명 수준이고, 사망자 수는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현재 연 26만 명 수준이다. 출생과 관련하여 출산 순위별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 아이의 성비는 자연적 성비 수준(103-107)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출산 성비가 1995년에는 180 정도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 현재는 III 정도도 그 상황이 완화되었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 아이의 비율이 50%인 반면 셋째 아이 이상은 전체 출생자의 11%에 그친다. 산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25-29세가 54%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 현재는 30-34세가 46%로 가장 많아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 연령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990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의 사망자 수는 1만 4천 명 정도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0-69세에 이르는 연령대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하였고, 70세 이상에서만 증가하였다. 이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유소년과 청장년층 사망자가 뚜렷하게 감소하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년층 인구의 사망자가 증가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원인별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87%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자살, 교통사고 순이었다. 자살의 증가 추세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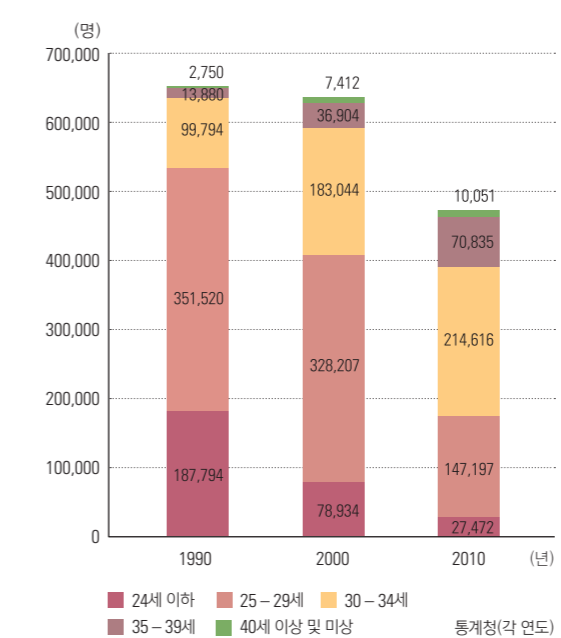
출생 순위별 성비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출생 성비	113.2	110.2	107.8	106.9
첫째	105.7	106.3	104.8	106.4
둘째	111.7	107.4	106.5	105.8
셋째 이상	180.1	144.2	128.5	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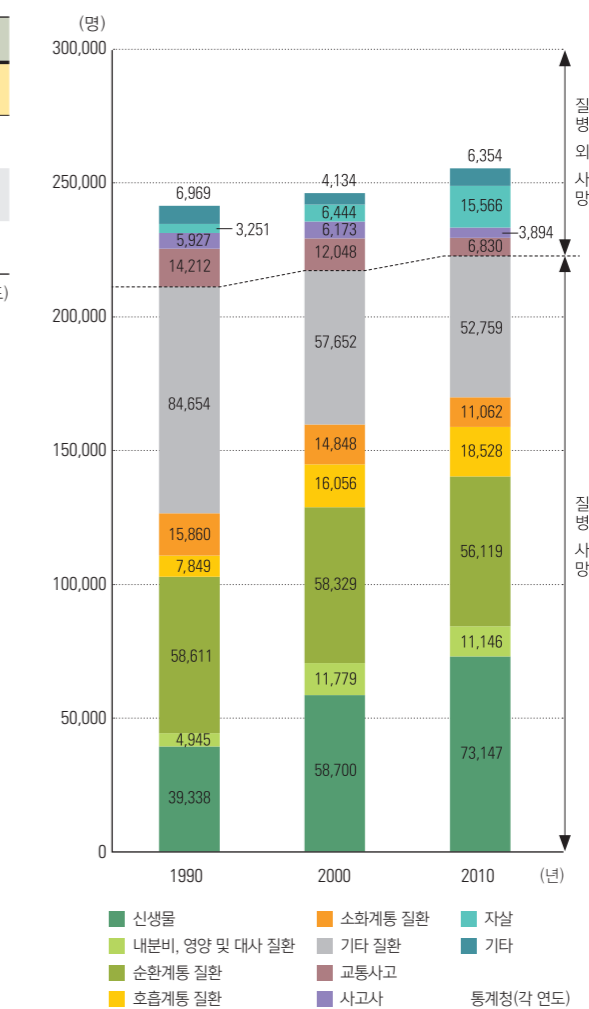
출산 순위별 출생



산모의 연령별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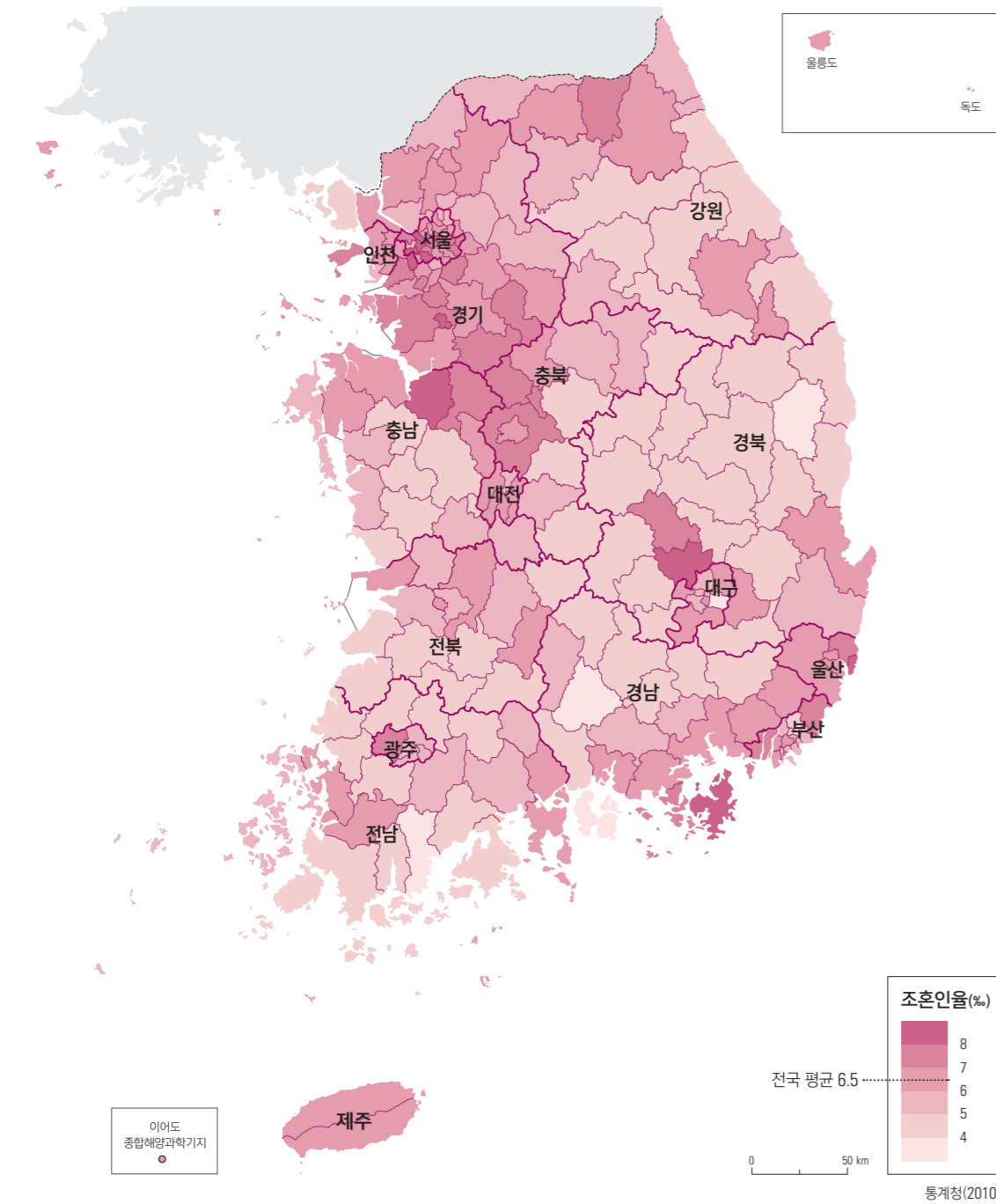
원인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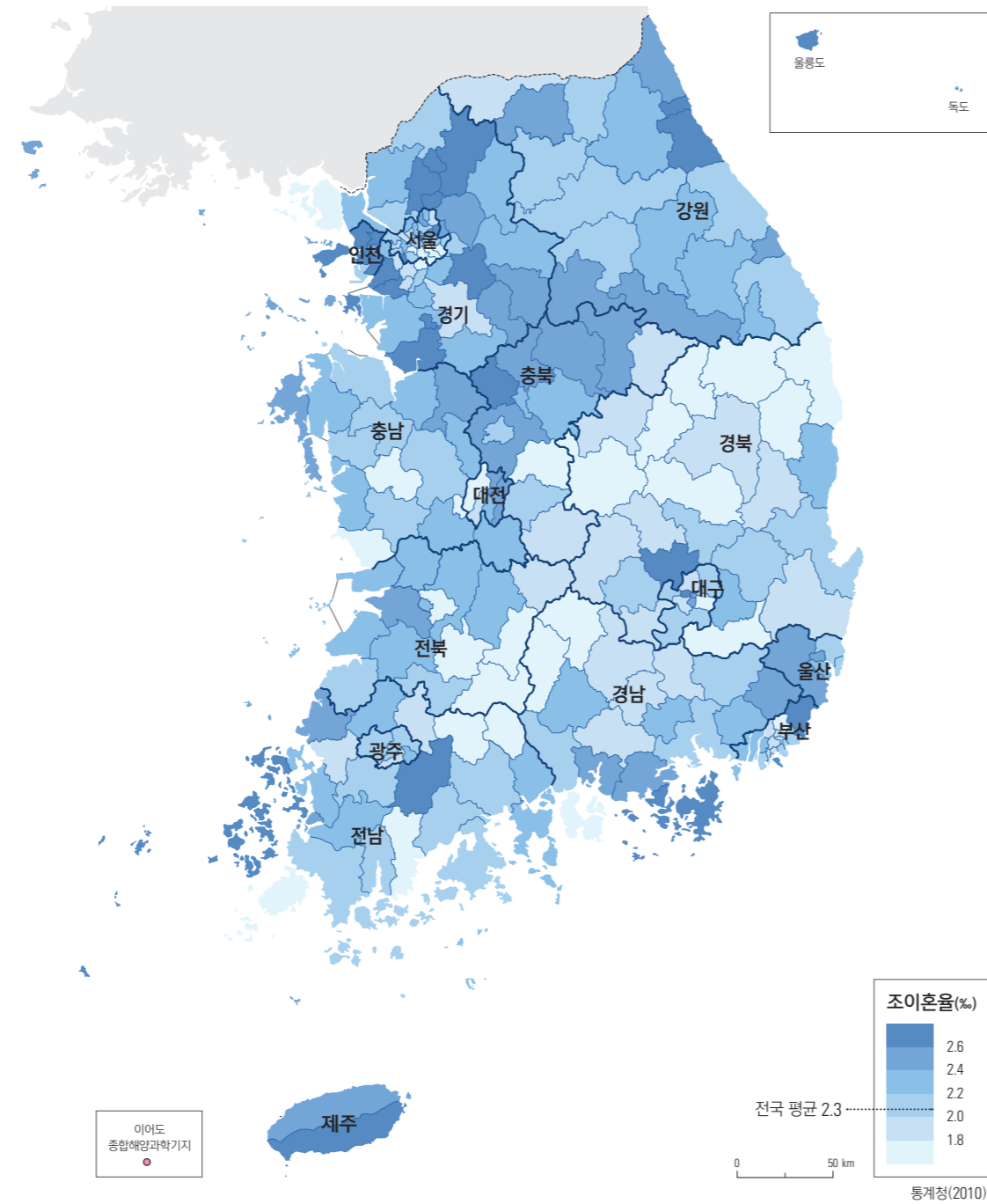
연령별 사망자 수

연령(5세)	1990년	2000년	2010년
계	241,616	246,163	255,405
0세	1,982	2,882	1,508
1-4세	2,700	1,221	386
5-9세	2,392	930	277
10-14세	1,876	615	417
15-19세	3,947	1,777	1,034
20-24세	4,812	2,537	1,411
25-29세	5,906	3,334	2,349
30-34세	7,174	4,397	2,809
35-39세	7,732	6,613	4,464
40-44세	9,292	9,874	6,890
45-49세	13,533	10,686	10,689
50-54세	17,062	12,526	14,117
55-59세	18,404	17,033	14,187
60-64세	20,432	22,268	16,397
65-69세	24,914	25,039	23,371
70-74세	26,946	28,854	32,541
75-79세	27,284	33,148	36,987
80세 이상	45,015	62,413	85,501
80-84세	0	29,758	36,391
85-89세	0	20,445	29,383
90세 이상	0	12,210	19,727
연령 미상	213	1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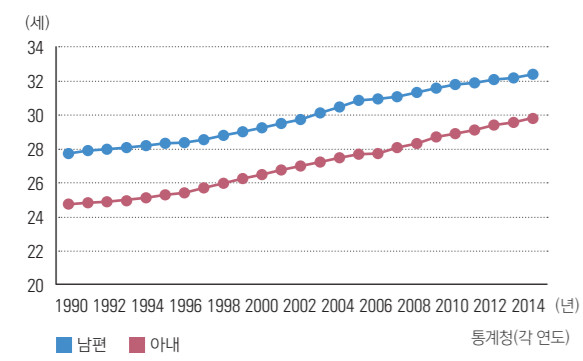
조혼인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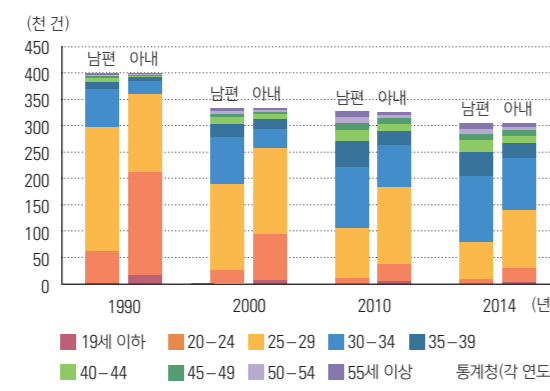
조이혼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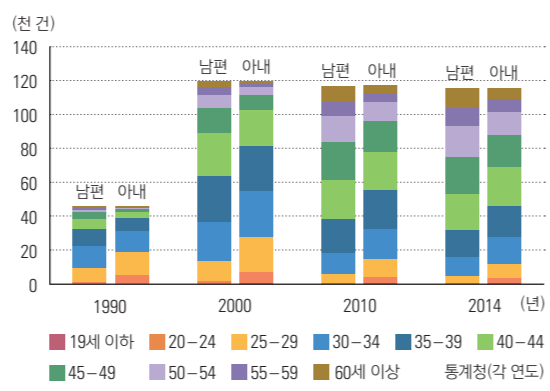
평균 초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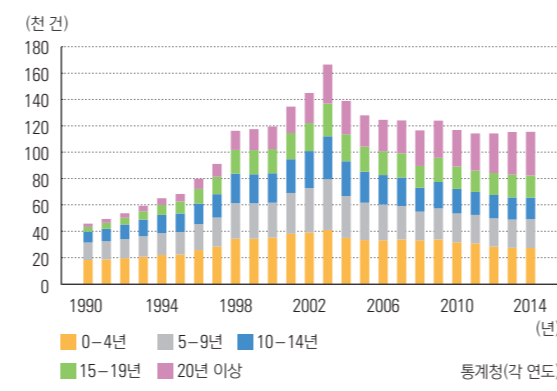
연령별 혼인 건수



연령별 이혼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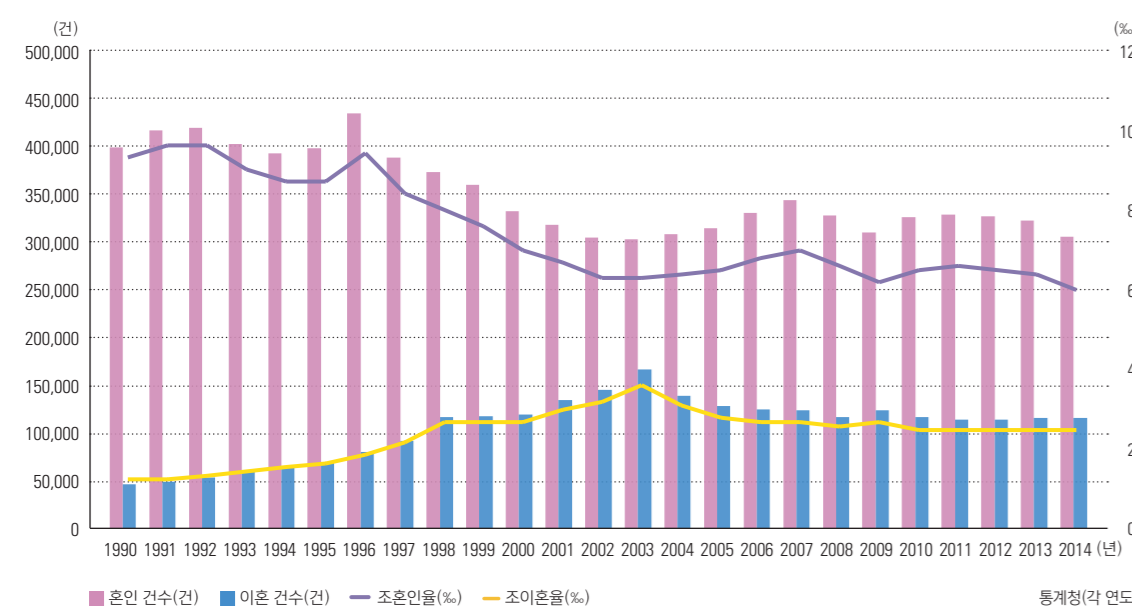
동거 기간별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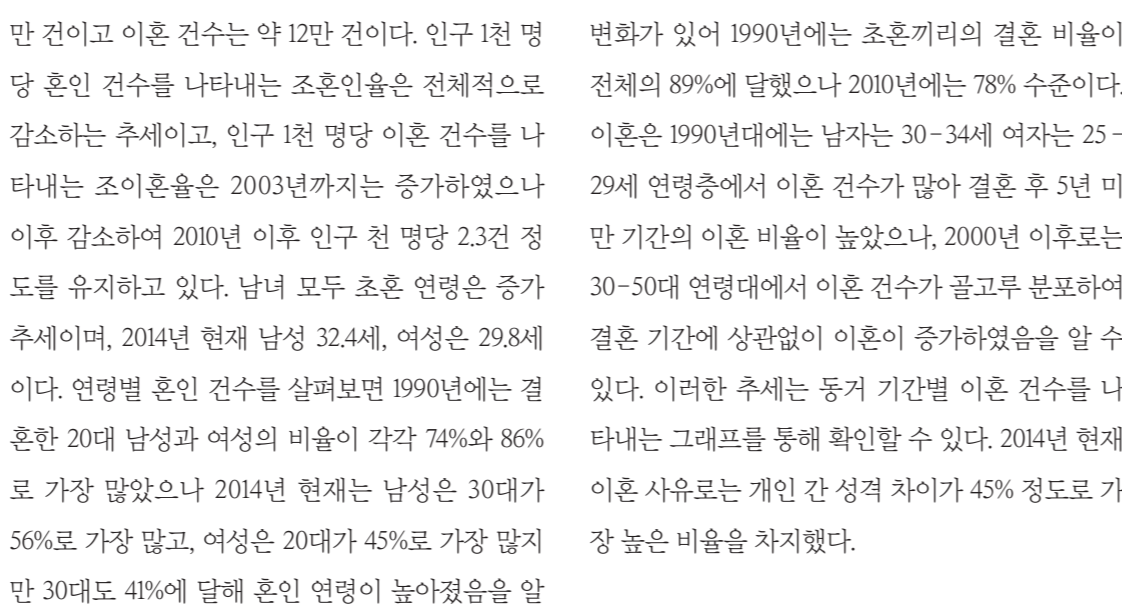
남편 아내 혼인 유형

남편	아내	1990				2010			
		총계	초혼	재혼	미상	총계	초혼	재혼	미상
총계		399,312	371,159	28,153	0	325,992	268,541	57,451	112
초혼		365,964	356,649	9,315	0	272,905	254,630	18,275	67
재혼		33,348	14,510	18,838	0	52,998	13,873	39,125	45
미상		0	0	0	0	89	38	51	0

혼인과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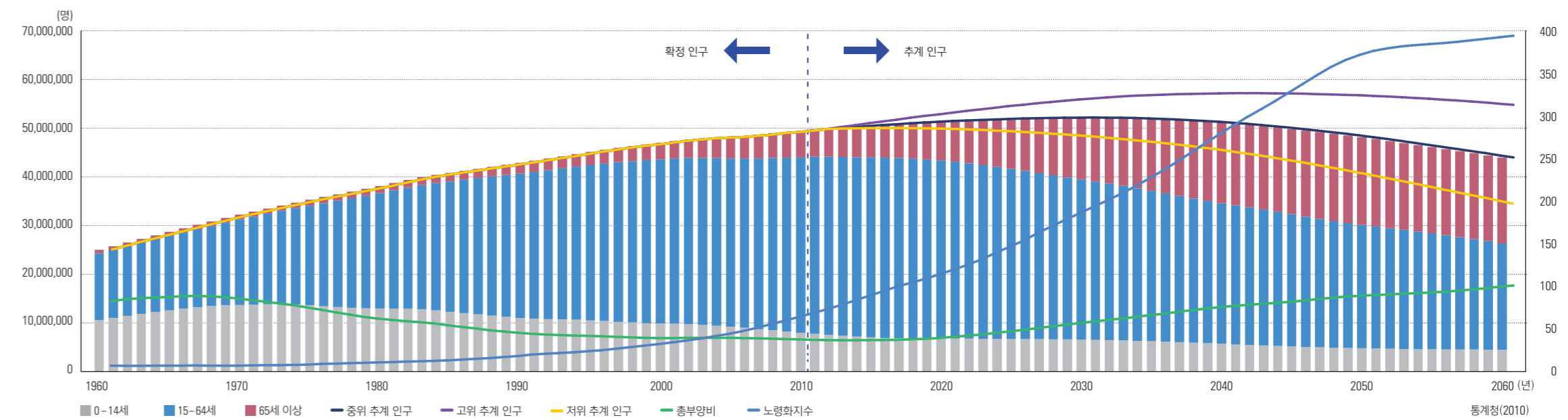
이혼 사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혼인 건수는 약 31만 건이고 이혼 건수는 약 12만 건이다.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03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인구 천 명당 2.3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남녀 모두 초혼 연령은 증가 추세이며, 2014년 현재 남성 32.4세, 여성은 29.8세이다. 연령별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결혼 20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74%와 86%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 현재는 남성은 30대가 56%로 가장 많고, 여성은 20대가 45%로 가장 많지만 30대도 41%에 달해 혼인 연령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1990년에는 초혼끼리의 결혼 비율이 전체의 89%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8% 수준이다. 이혼은 1990년대에는 남자는 30-34세 여자는 25-29세 연령층에서 이혼 건수가 많아 결혼 후 5년 미만 기간의 이혼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로는 30-50대 연령대에서 이혼 건수가 골고루 분포하여 결혼 기간에 상관없이 이혼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동거 기간별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이혼 사유로는 개인 간 성격 차이가 4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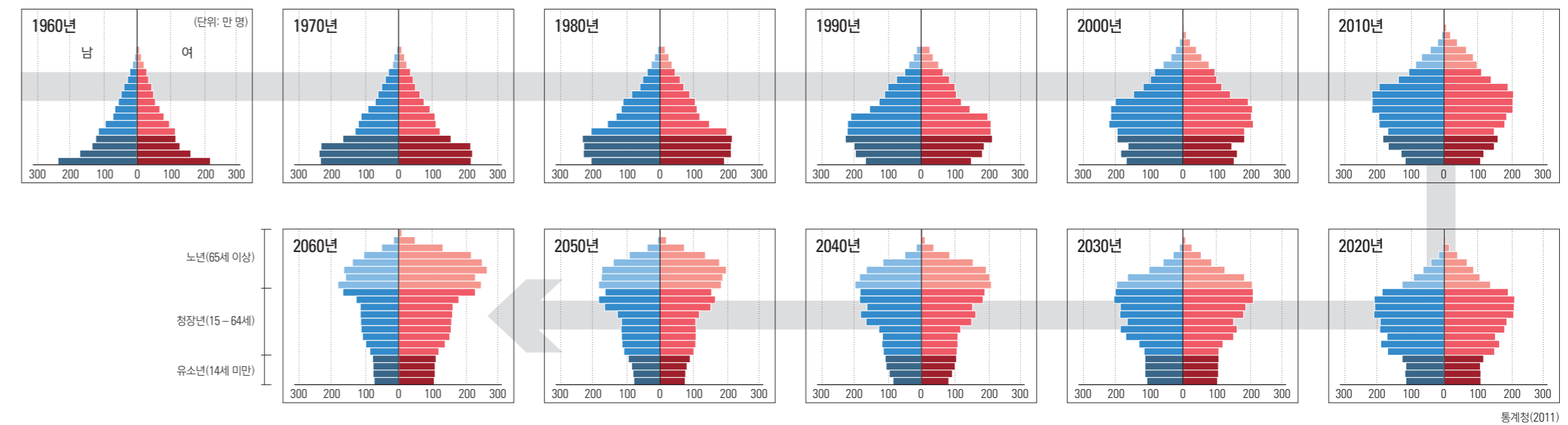
인구 추계

연령별 추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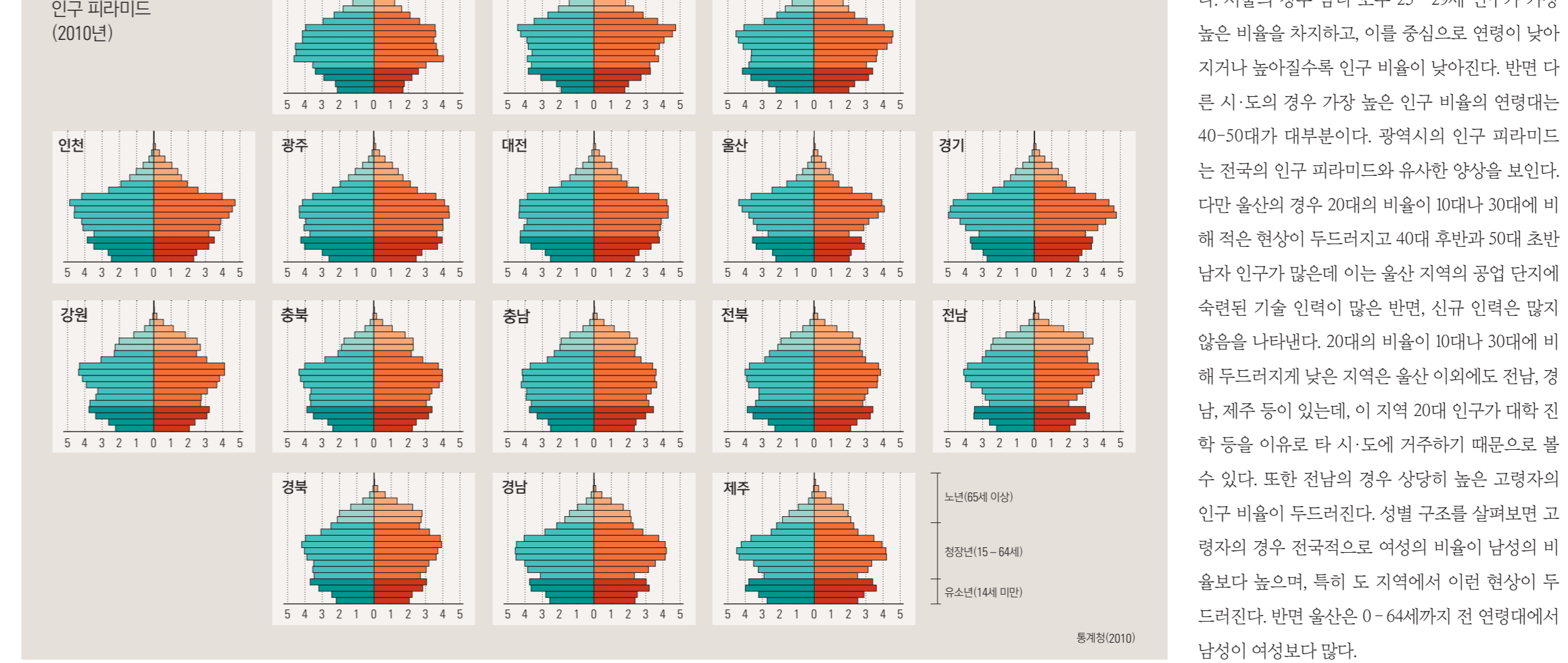


인구 추계는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수립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노동, 교육, 산업, 환경, 주택 분야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1년 통계청에서는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와 2005년 이후 인구 동태 및 국제 이동 실적을 바탕으로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s method)을 사용하여 2060년까지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를 추계하였다. 인구 추계는 중위, 고위, 저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인구 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의 장래 수준을 중위, 고위, 저위로 가정 후 인구가 중간 수준인 시나리오의 조합을 중위, 인구가 가장 많은 시나리오의 조합을 고위, 인구가 가장 적은 시나리오의 조합을 저위로 나누었다. 2010년 현재 4,941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중위 가정에 의하면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하고 그 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으로 199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 가정에 따르면 2041년 5,71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 5,478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위 가정의 경우에는 2016년 5,002만 명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3,447만 명으로 1974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부터 2060년까지 10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1960년에는 전형적인 개발 도상국형 구조로 유소년층이 많고 노년층이 적은 피라미드형이었다. 2010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고 중간 연령층이 많은 선진국형 구조인 종형이었다. 중위 가정을 전제로 할 경우 2060년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60대 이상이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형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간 인구 피라미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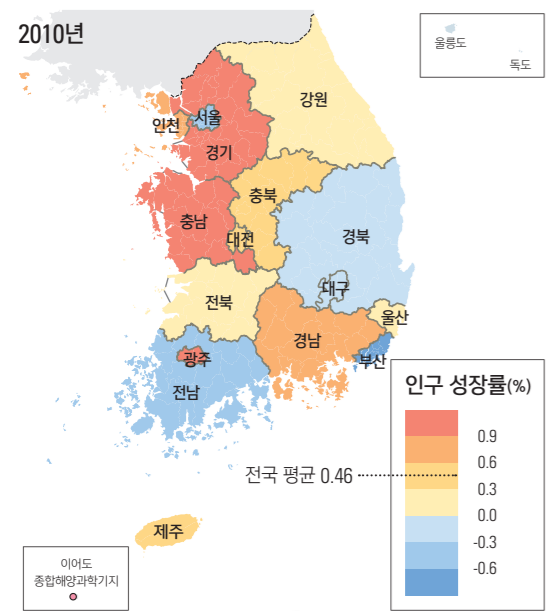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 피라미드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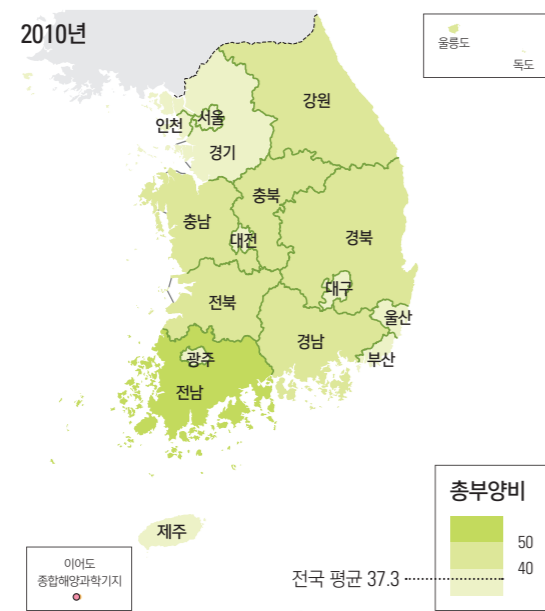


2010년 현재 시·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각 지역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남녀 모두 25-29세 인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령이 낮아 지거나 높아질수록 인구 비율이 낮아진다. 반면 다른 시·도의 경우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의 연령대는 40-50대가 대부분이다. 광역시의 인구 피라미드는 전국의 인구 피라미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울산의 경우 20대의 비율이 10대나 30대에 비해 적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남자가 많은데 이는 울산 지역의 공업 단지에 숙련된 기술 인력이 많은 반면, 신규 인력은 많지 않음을 나타낸다. 20대의 비율이 10대나 30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지역은 울산 이외에도 전남, 경남, 제주 등이 있는데, 이 지역 20대 인구가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거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상당히 높은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두드러진다. 성별 구조를 살펴보면 고령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높으며, 특히 도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반면 울산은 0-64세까지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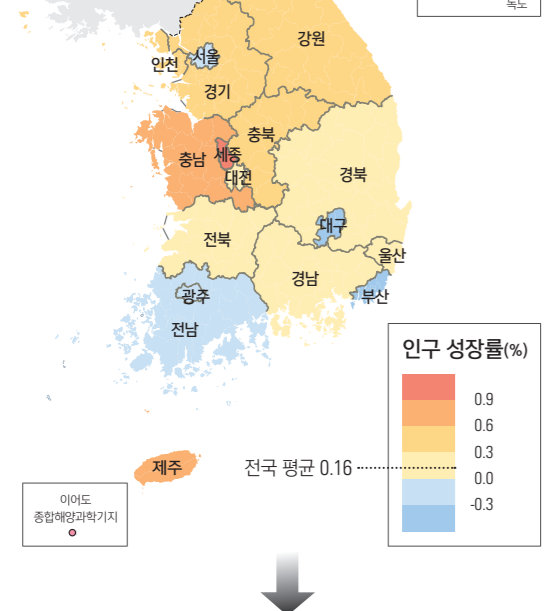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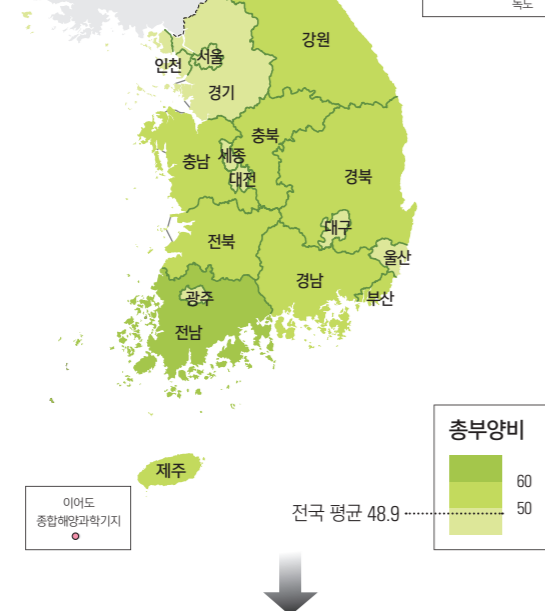
중위 가정을 토대로 2010년부터 2040년까지 시·도별 추계 인구, 성비, 인구 성장률, 총부양비, 중위 연령 등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를 추계하여 향후 시·도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았다. 2010년 대비 2040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제주인 반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인구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비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완만한 하향 추세가 예상된다. 인구 성장률은 2040년을 기준으로 세종과 충남

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위 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국적으로 53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경우 2040년 중위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특히 전남의 경우 59.4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 역시 증가하여 2040년 77%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77명의 유소년층 또는 노년층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인구 성장률과 총부양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총부양비의 경우에도 부양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인구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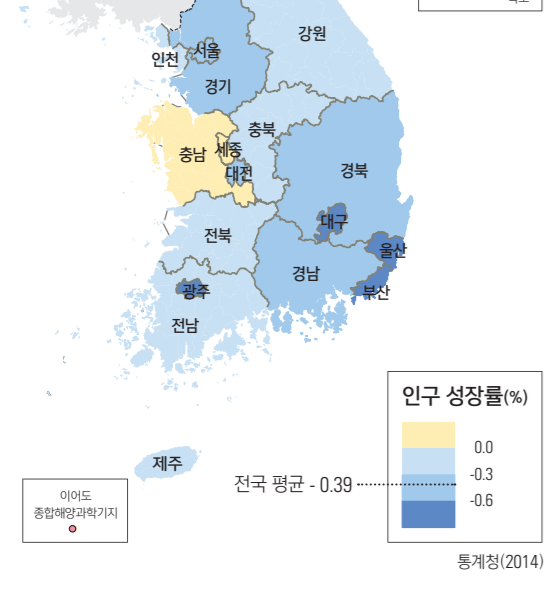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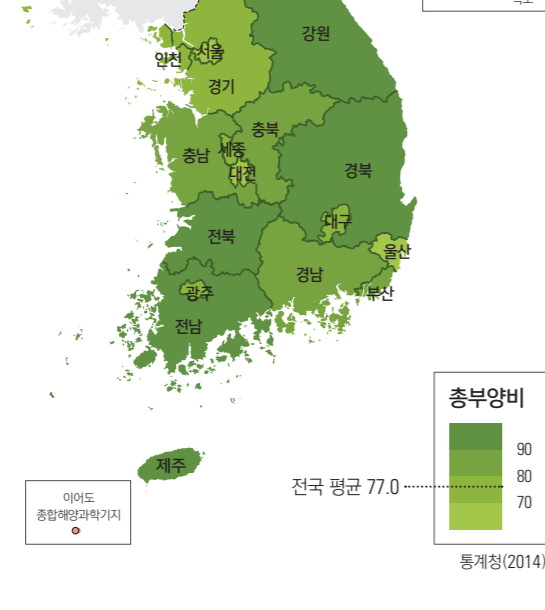
2025년 대비 2040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제주인 반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인구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비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완만한 하향 추세가 예상된다. 인구 성장률은 2040년을 기준으로 세종과 충남

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위 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0년에는 전국적으로 53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경우 2040년 중위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특히 전남의 경우 59.4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 역시 증가하여 2040년 77%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77명의 유소년층 또는 노년층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인구 성장률과 총부양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총부양비의 경우에도 부양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인구 성장률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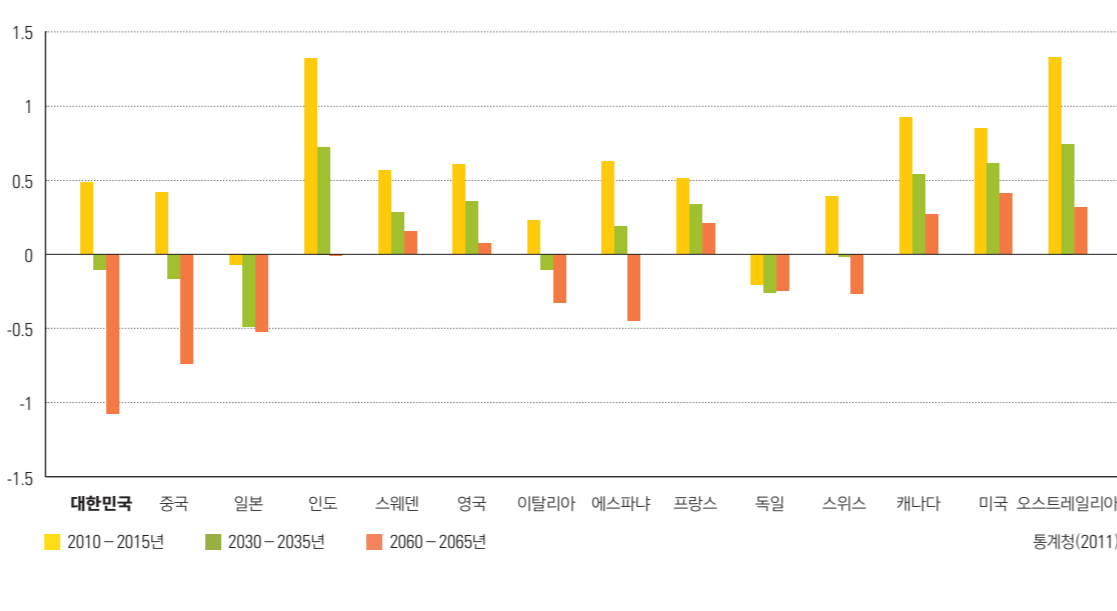
2040년 대비 2060년 인구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제주인 반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는 인구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비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완만한 하향 추세가 예상된다. 인구 성장률은 2060년을 기준으로 세종과 충남

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위 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2060년에는 전국적으로 53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경우 2060년 중위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특히 전남의 경우 59.4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부양비 역시 증가하여 2060년 77%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77명의 유소년층 또는 노년층 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80년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인구 성장률과 총부양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총부양비의 경우에도 부양비의 증가폭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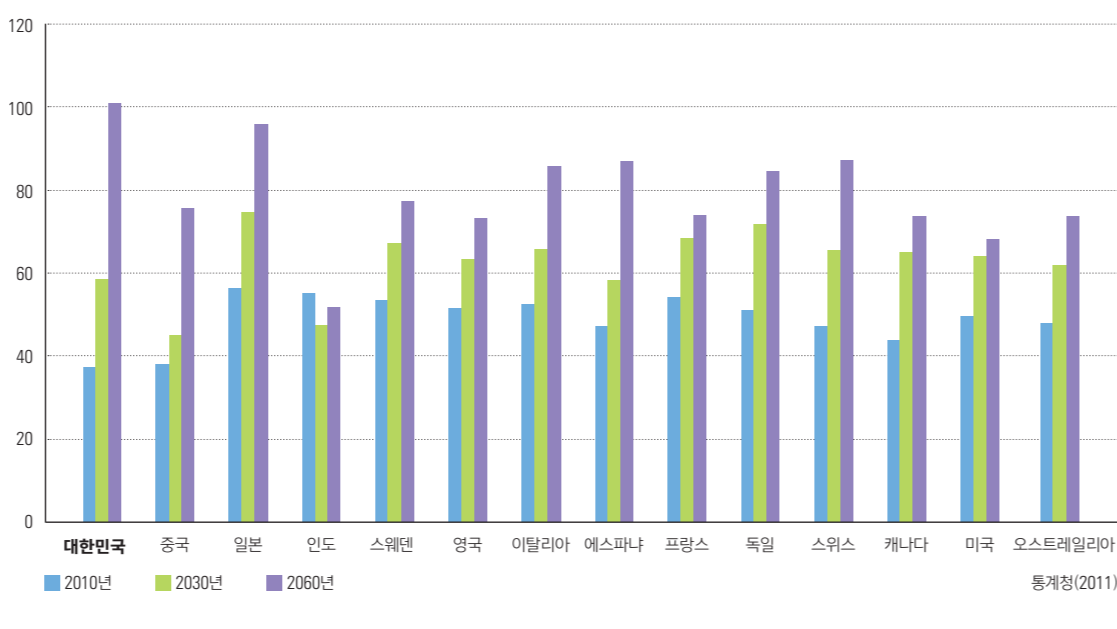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 추계

시·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총인구(명)	성비(여자 1백 명당)	인구 성장률(%)	총부양비(생산 가능 인구 1백 명당)	총인구(명)	성비(여자 1백 명당)	인구 성장률(%)	총부양비(생산 가능 인구 1백 명당)	총인구(명)	성비(여자 1백 명당)	인구 성장률(%)	총부양비(생산 가능 인구 1백 명당)	총인구(명)	성비(여자 1백 명당)	인구 성장률(%)	총부양비(생산 가능 인구 1백 명당)				
전국	49,410,366	100.4	0.46	37.3	51,435,495	99.4	0.28	40.7	43.4	52,160,065	98.6	0.01	58.6	48.5	51,091,352	97.8	-0.39	77.0	52.6	
서울특별시	10,050,508	97.6	-0.53	30.4	37.3	9,761,875	95.1	-0.15	36.4	42.4	9,564,220	94.0	-0.32	52.8	47.3	9,160,269	93.0	-0.52	68.0	51.1
부산광역시	3,466,333	97.5	-0.62	33.6	40.0	3,341,312	95.6	-0.36	42.8	46.5	3,210,454	94.3	-0.44	64.2	51.6	3,026,016	93.7	-0.73	83.6	56.1
대구광역시	2,472,230	99.3	-0.12	35.5	38.1	2,423,590	97.1	-0.30	39.9	44.5	2,336,472	95.6	-0.41	59.3	49.7	2,204,372	94.9	-0.74	79.5	53.8
인천광역시	2,713,206	102.3	0.82	33.6	37.0	3,014,686	100.4	0.77	36.7	47.2	3,170,366	99.0	0.28	54.7	47.2	3,164,042	97.7	-0.26	71.3	51.1
광주광역시	1,489,450	98.8	0.94	37.6	35.2	1,516,932	98.3	-0.03	39.8	41.2	1,494,758	97.9	-0.24	55.5	46.1	1,429,555	97.9	-0.62	72.2	49.4
대전광역시	1,510,867	101.1	0.43	34.9	35.6	1,533,879	100.1	0.11	38.0	41.1	1,550,782	99.4	0.05	53.9	45.9	1,526,159	98.8	-0.34	68.6	49.7
울산광역시	1,094,107	108.0	0.03	33.2	36.9	1,158,837	108.3	0.19	34.5	42.2	1,158,413	107.2	-0.19	51.6	47.2	1,099,143	106.9	-0.78	67.8	50.1
세종특별자치시	-	-	-	-	319,490	105	5.61	43.6	39	426,930	103.3	1.63	55.5	43.5	461,387	102.6	0.19	70.8	47.6	
경기도	11,575,780	102.3	1.76	36.3	36.5	12,928,357	101.1	0.71	37.6	41.4	13,447,567	100.1	0.15	54.1	46.0	13,245,681	99.3	-0.39	70.2	49.7
강원도	1,486,522	102.1	0.23	44.8	40.6	1,529,996	101.4	0.31	47.1	47.3	1,576,767	100.0	0.28	70.3	53.1	1,593,295	98.8	-0.09	94.9	58.0
충청남도	1,521,655	101.8	0.45	43.0	38.7	1,595,313	102.5	0.50	43.9	44.7	1,671,790	102.2	0.40	62.7	49.9	1,699,664	101.4	-0.05	83.2	54.8
충청북도	2,075,612	104.0	1.82	45.8	38.6	2,170,972	103.8	0.81	47.8	44.2	2,323,886	103.3	0.54	65.6	49.5	2,388,447	102.0	0.05	86.7	54.8
전라북도	1,794,335	97.2	0.21	48.1	40.2	1,806,457	97.7	0.09	50.2	46.5	1,826,283	98.0	0.12	69.3	51.8	1,819,174	97.3	-0.21	92.5	56.7
전라남도	1,777,067	97.3	-0.47	56.2	43.3	1,743,328	99.1	-0.17	55.4	49.2	1,735,188	100.3	0.05	76.1	54.6	1,726,387	97.9	-0.18	103.5	59.4
경상북도	2,627,778	100.2	-0.16	45.7	40.9	2,645,209	100.5	0.03	49.3	47.8	2,654,018	100.5	0.01	71.7	53.8	2,612,745	99.8	-0.32	96.3	58.9
경상남도	3,208,167	103.3	0.73	41.5	38.6	3,330,027	102.5	0.20	43.7	44.9	3,358,030	101.4	-0.03	62.8	50.4	3,268,386	100.1	-0.47	86.1	55.2
제주특별자치도	546,749	100.0	0.38	46.4	38.0	615,235	100.3	0.82	45.5	43.8	654,143	99.0	0.46	62.6	49.1	666,630	97.8	-0.03	85.4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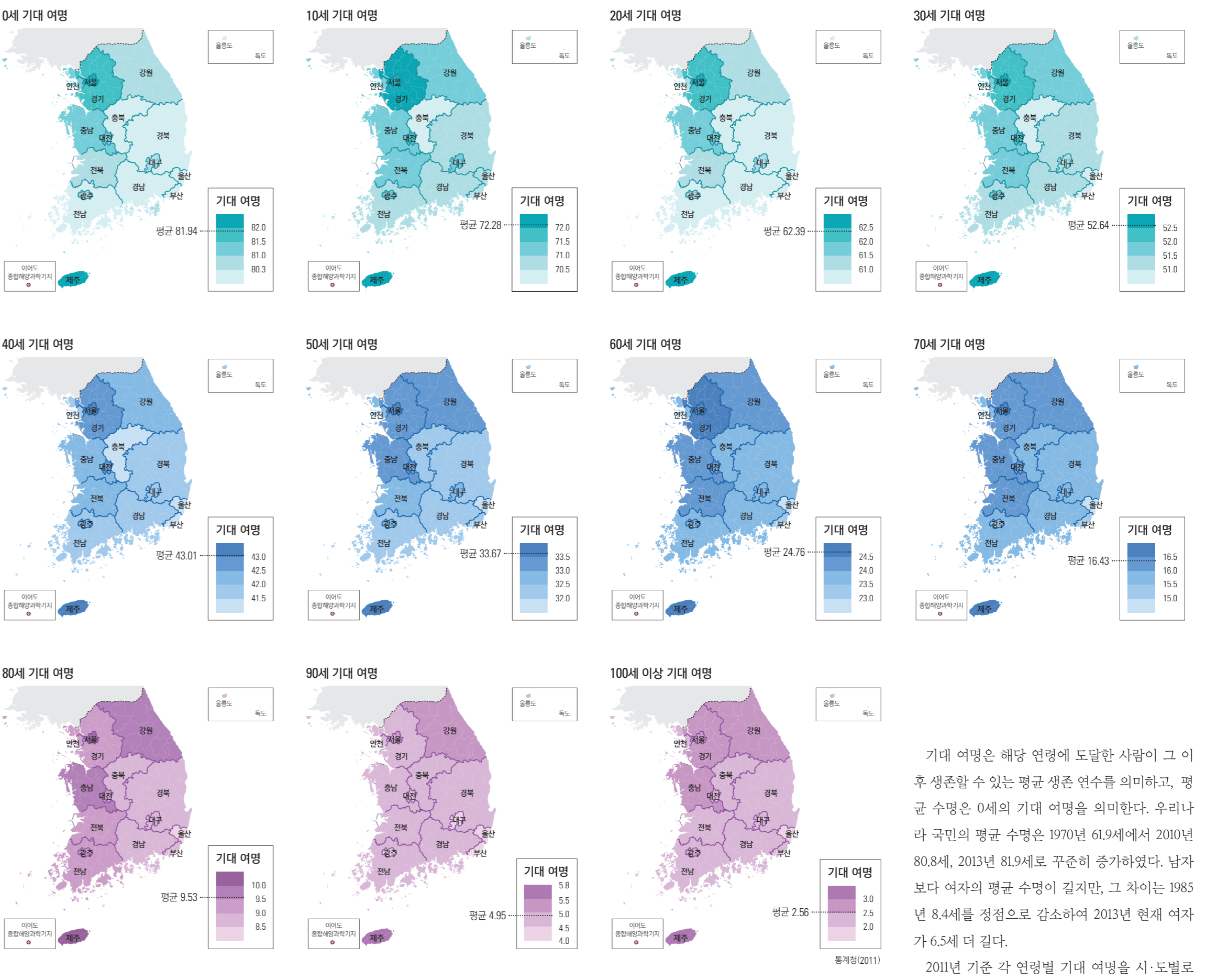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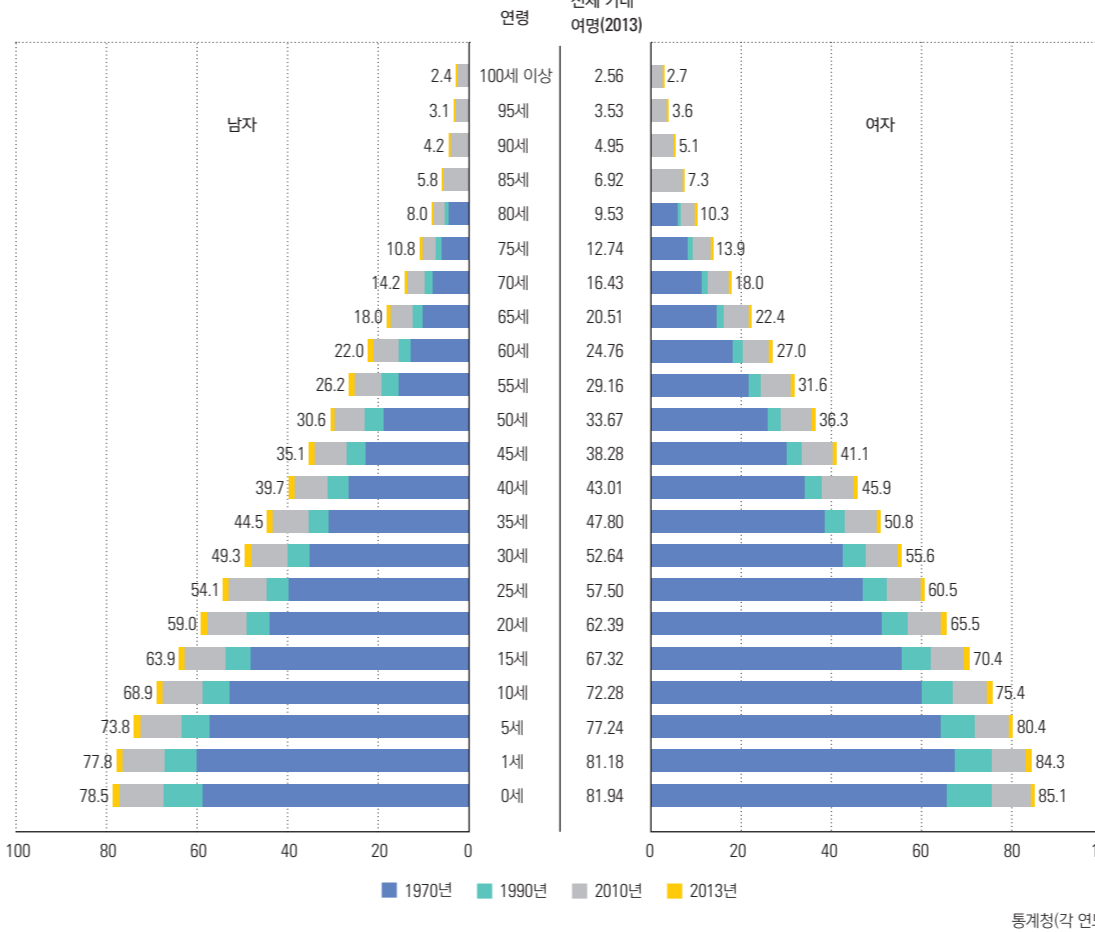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의 총부양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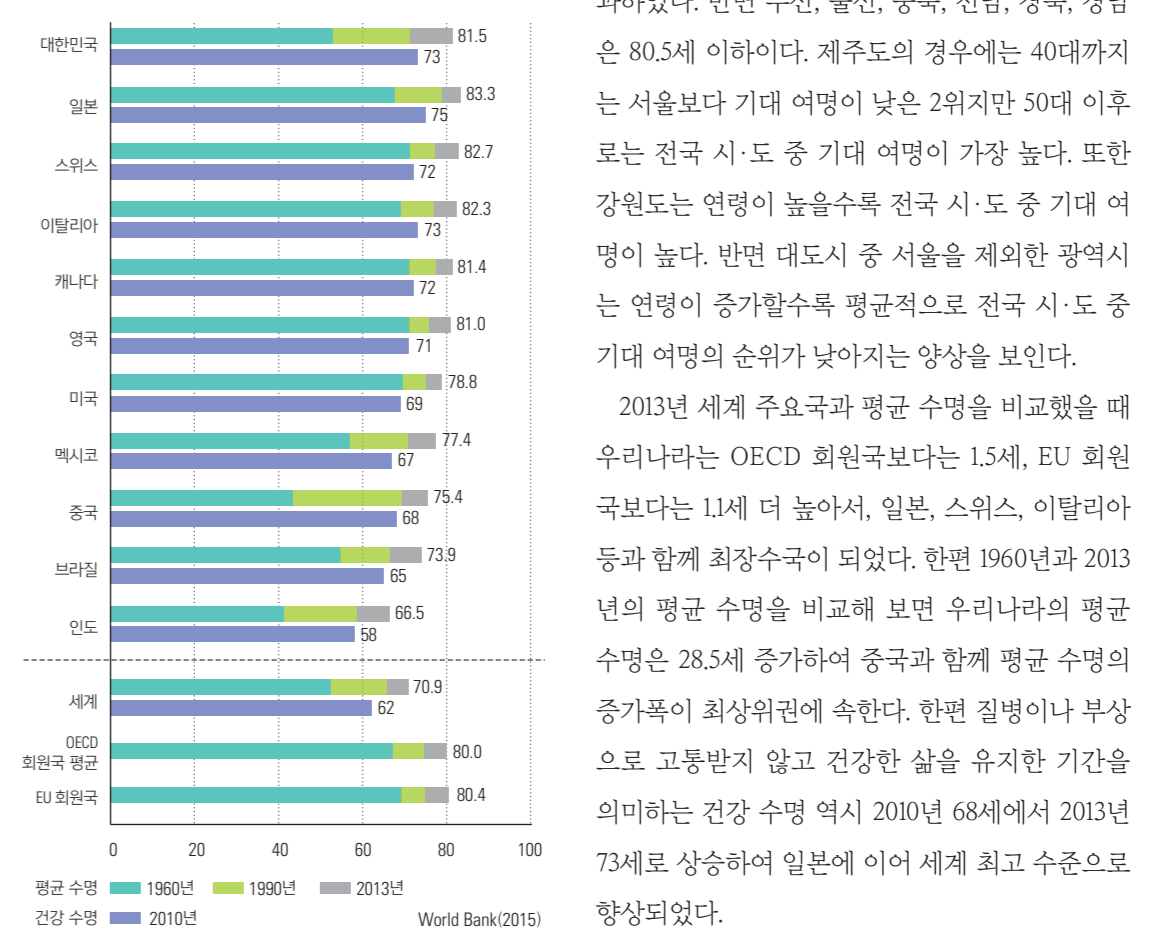
시·도별 기대 여명(2011년)



연령별 기대 여명



세계 주요국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기대 여명은 해당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하고, 평균 수명은 0세의 기대 여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0년 80.8세, 2013년 81.9세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길지만, 그 차이는 1985년 8.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3년 현재 여자가 6.5세 더 길다. 2011년 기준 각 연령별 기대 여명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0세의 기대 여명은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이 81.5세를 초과했고 충남과 대전이 81세를 초과하였다. 반면 부산,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80.5세 이하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40대까지는 서울보다 기대 여명이 낮은 2위지만 50대 이후로는 전국 시·도 중 기대 여명이 가장 높다. 또한 강원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국 시·도 중 기대 여명이 높다. 반면 대도시 중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적으로 전국 시·도 중 기대 여명의 순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2013년 세계 주요국과 평균 수명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보다는 1.5세, EU 회원국보다는 1.1세 더 높아서,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장수국이 되었다. 한편 1960년과 2013년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8.5세 증가하여 중국과 함께 평균 수명의 증가폭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한편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 역시 2010년 68세에서 2013년 73세로 상승하여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다.